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51호 【루계 제25560호】 주체106(2017)년 2월 20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인민의 지상락원을 보란듯이 일떠세우자

현대적인 순환비등층보이라가 은을 낸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 재자원화가 실현된 에네르기절약형의 증기생산공정 확립

얼마전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 재자원화가 실현된 에네르기절약형의 증기생산공정이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끝내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고층살림집을 련상케 하는 3기의 순환비등층보이라와 연료장, 먼지잡이계통으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증기생산공정은 주체비료생산과정에 나온 수십만t의 공업폐설물과 폐가스를 연료로 98%정도의 연소효률을 보장하며 시간당 백수십t의 증기와 1만kW이상의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장군님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한평생 인민들의 행복을 위한 길을 걸고 또 걸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 여러차례나 금지의 화학공업기지를 찾아주시여 주체비료생산능력을 확장할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련합기업소 당, 행정일군들은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하늘이 무너져도 기어이 결사관철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시기 비료생산에 리용되는 증기는 수입연료에 의존하거나 주변의 화력발전소에서 보장받았다. 우리 당이 내세운 자강력제일주의를 비약의 무기로 틀어쥔 련합기업소일군들은 해당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현대적인 증기생산공정을 일떠세워 주체비료생산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하게 조직전개하였다.

방대한 건축공사를 동반하는 새로운 증기생산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은 수백t에 달하는 설비와 장치품들, 거미줄처럼 뻗어나가는 배관들을 제작조립하고 여러 보조건물을 일떠세워야 하는 어려운 대상공사였다. 그것도 온 나라 혐동벌들에 더 많은 비료를 보내주기 위한 증산투쟁을 벌리면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공사를 내밀어야 하였다.

공사를 시작할 당시 일부 대상은 전문건설단위들에서 맡아 수행하게 되어있었지만 결사관철의 정신을 제질화해온 남흥로동계급은 주체비료생산공정을 일떠세우던 그때처럼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결사적인 전투에 진입하였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선진과학기술에 기초한 에네르기생산방식과 재자원화를 총적목표로 내세우고 합리적인 건설공법과 조립방법들을 받아들여 투자의 효과성을 최대로 높이는 방향에서 설계로부터 시공, 조립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갔다.

련합기업소의 기술집단과 해당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지칠줄 모르는 탐구와 열정으로 미지의 과학세계를 하나하나 점령해나갔다. 이 과정에 기존공식을 타파하는 선진기술이 건축공사에 도입되여 초기투자의 70%에 해당한 세멘트와 적지 않은 철강재가 절약되고 굴뚝과 먼지잡이탑이 일체화된 특색있는 3차제진장치가 설계제작되였으며 물속통과식의 먼지잡이방법과 연료장입, 착화기술 등의 문제들이 성과적으로 해결되였다.

련합기업소의 오랜 기능공들은 기술자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암모니아생산공정에서 나오는 폐가스를 리용하여 순환비등층보이라의 연소효률을 더욱 높이는 방법을 창안도입하였다. 또한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던 공기분사노즐을 자체로 만들어냈으며 재배출공정의 현대화수준을 높일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순환비등층보이라에서 나오는 고압증기를 비료생산에 리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평창공정에 발전기들을 설치함으로써 많은 전기까지 얻을수 있도록 창조적으로 일판을 전개하였다.

남흥로동계급은 공사기일을 단축할수 있는 설비조립방법을 받아들여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키고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여러대의 대형전동기와 뿜프를 비롯한 수많은 설비와 장치품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 및 해결하였다.

성과가 확대될수록 련합기업소에서는 새 공정을 담당할 일군들과 기능공들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도 전망성있게 내밀었다. 현장건설지휘부 책임자로 일하던 리후민동무를 비롯한 능력있는 일군들이 증기생산공정에 배치되였으며 로동자들이 기술공정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맡은 기대를 능숙하게 다룰수 있게 현장기술학습을 강화하였다.

재자원화가 실현된 에네르기절약형의 순환비등층보이라를 일떠세워 얻게 되는 경제적실리는 대단하다.

주체비료생산에서 증기문제가 원만히 해결됨으로써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에 제시된 비료생산과제를 점령할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였다.

비료생산과정에 나와 쌓여있던 수십만t의 공업폐설물이 연료로 전환되고 주변의 화력발전소에서 받아쓰던 증기량의 많은 몫을 자체로 해결함으로써 나라의 전력생산을 늘이는데도 이바지하게 되였다.

환경보호측면에서도 의의가 크며 자체로 생산한 전기는 종업원들의 생활에 이바지하게 되고 증기생산공정에서 나온 폐설물로는 세멘트와 블로크를 비롯한 지방건재를 생산하고있다.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에 매달리는 제국주의자들의 면상을 보기 좋게 후려갈기며 조선로동계급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한 이 눈부신 성과는 남흥로동계급이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고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의 결정체이며 대중의 굴함없는 공격정신에 과학기술이 안말침되면 이 세상에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전성삼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인민의 지상락원을 보란듯이 일떠세우자

려명거리건설소식

최후돌격전에로 부르는 경제선동의 북소리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와의 대결, 사회주의수호전의 전구인 려명거리건설장에서 군인들과 건설자들을 신화적인 건설속도창조에로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계속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려명거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 다음날인 1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중앙예술단체들과 각급 근로단체조직들, 여러 교육기관 등 수십개 단위에서 수많은 예술인들과 경제선동대원들, 녀명예술선동대원들, 학생청년들이 이곳으로 달려나와 건설자들의 심장에 혁명열, 투쟁열, 경쟁열을 북돋아주는 화선식경제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선전선동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일대 사상전을 벌리고 사회주의경쟁을 널리 조직하여 건설장마다에 비약의 열풍, 결사관철의 기상이 나래치고 전투적기백과 혁명적랑만이 차넘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려명거리건설지휘부에서는 건설자들을 련속공격, 계속혁신, 계속전진에로 적극 고무추동하는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더욱 우렁차게 울려퍼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특히 김일성종합대학 15호, 16호기숙사건설장을 비롯한 주타격전선에서 사상의 위력한 포문을 열어 건설자들의 심장마다에 순간순간 격동의 불시기였다.

시성구역 하신동과 현룡동녀명예술선동대원들도 불붙는 전투현장 한복판에 무대를 정하고 건설자들을 최후돌격전에로 불러일으키는 격동적이고 참신한 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리였다.

평양시인의 대학생들이 로동당시대와 더불어 힘차게 전진하는 사회주의조선의 필승의 기상을 과시하는 전구인 려명거리건설장에 달려와 취주악대활동을 힘있게 벌리였다. 특히 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에서는 기백있는 취주악대활동을 통하여 건설자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김일성종합대학, 내각사무국, 조선태권도위원회에서도 방송선전차들을 여러 전투현장마다에 배치하여놓고 힘있는 방송선동으로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을 자력자강의 철퇴로 단호히 쳐갈기며 신화적인 건설속도를 창조해나가고있는 건설자들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려명거리건설장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우렁차게 울려퍼지는 경제선동의 북소리는 려명거리건설자들의 투쟁을 더욱 힘있게 추동하는 또 하나의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현지보도반

탄전마다에 타오르는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

평안남도의 탄광련합기업소들에서

강원도정신으로 자력자강의 승전포성을 힘차게 울려갈데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평안남도의 탄광련합기업소들의 탄전마다에서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폭격전을 힘차게 벌려야 합니다.》

평안남도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석탄을 많이 생산하는것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심장깊이 새긴 도당위원회 일군들은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는데서 중심고리의 하나인 석탄증산에 총화력을 집중하고있다.

도안의 모든 탄전이 강원도정신으로 부글부글 끓고 석탄산을 높이 쌓아갈 탄부들의 불같은 열의로 활화산처럼 타오르고있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일군들은 갱막장들에 달려나가 탄부들과 어깨겯고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수시로 막장으로 들어가 걸린 문제들을 알아보고 필요한 설비, 자재, 부속품들을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그리고 막장에서 창조되고있는 좋은 경험들과 혁신적인 소식들을 널리 소개선전하면서 화선식정치사업을 드세게 벌려나가고있다.

강원도정신으로 자력자강의 영웅신화를 창조하자!

이런 신념을 안고 떨쳐나선 2.8직동청년탄광 일군들과 탄부들은 수시로 변하는 막장조건에 맞게 필요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놓았을뿐아니라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도 맞받아 뚫고나가며 결사전을 벌려나가고있다. 갱, 소대별사회주의증산경쟁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이 높이 발휘되는 속에 6갱, 청년갱들에서 일정계획보다 훨씬 많은 석탄을 캐내는 위훈이 창조되고있다.

천성청년탄광 일군들과 탄부들은 앞선 채탄방법과 새로운 기술혁신안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석탄생산량을 늘여가고있다. 특히 2갱, 11갱, 부흥갱, 강성갱의 탄부들은 막장조건이 어렵지만 일정계획보다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는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명학탄광의 2갱, 6갱, 7갱에서도 신심과 락관에 넘쳐 련속 탄벽을 허물며 매일 많은 석탄을 캐내고있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이고 빈틈없는 작전을 세운데 맞게 높이 세운 석탄생산목표를 하나하나 점령해나가고있다. 특히 수십만t의 증기와 1만kW이상의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폭격전을 힘차게 벌려야 합니다.》

평안남도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석탄을 많이 생산하는 것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심장깊이 새긴 도당위원회 일군들은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는데서 중심고리의 하나인 석탄증산에 총화력을 집중하고있다.

도안의 모든 탄전이 강원도정신으로 부글부글 끓고 석탄산을 높이 쌓아갈 탄부들의 불같은 열의로 활화산처럼 타오르고있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일군들은 갱막장들에 달려나가 탄부들과 어깨겯고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수시로 막장으로 들어가 걸린 문제들을 알아보고 필요한 설비, 자재, 부속품들을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그리고 막장에서 창조되고있는 좋은 경험들과 혁신적인 소식들을 널리 소개선전하면서 화선식정치사업을 드세게 벌려나가고있다.

강원도정신으로 자력자강의 영웅신화를 창조하자!

이런 신념을 안고 떨쳐나선 2.8직동청년탄광 일군들과 탄부들은 수시로 변하는 막장조건에 맞게 필요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놓았을뿐아니라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도 맞받아 뚫고나가며 결사전을 벌려나가고있다. 갱, 소대별사회주의증산경쟁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이 높이 발휘되는 속에 6갱, 청년갱들에서 일정계획보다 훨씬 많은 석탄을 캐내는 위훈이 창조되고있다.

천성청년탄광 일군들과 탄부들은 앞선 채탄방법과 새로운 기술혁신안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석탄생산량을 늘여가고있다. 특히 2갱, 11갱, 부흥갱, 강성갱의 탄부들은 막장조건이 어렵지만 일정계획보다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는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명학탄광의 2갱, 6갱, 7갱에서도 신심과 락관에 넘쳐 련속 탄벽을 허물며 매일 많은 석탄을 캐내고있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이고 빈틈없는 작전을 세운데 맞게 높이 세운 석탄생산목표를 하나하나 점령해나가고있다. 특히 수십만t의 증기와 1만kW이상의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화학공업은 공업의 기초이며 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소금생산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소금생산을 늘이기 위한 시, 군별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총화평가사업을 잘하는 한편 일군들이 현지에 내려가 걸린 문제를 알아보고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로력과 전기보장대책, 소금생산에 필요한 설비, 공구보장대책을 제때에 세워주며 모든 소금밭면적에 대한 뚜보수와 면고루기 등 생산준비를 앞당겨 끝내는데 총력량을 집중하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소금생산지휘부에서는 전투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작전을 통이 크게 펼치고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일군들과 소금생산자들은 앞선 소금생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기술을 끊임없이 혁신하여 뜻깊은 광명성절을 앞두고 지난해보다 첫 소금꽃을 보름이나 앞당겨 피우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들은 고압전동기와 대형뽐프들을 만가동시켜 예비저수지들마다에 바다물을 채워놓고 결정지들마다에 타일깔기를 새롭게 진행하여 질좋은 소금을 생산할수 있는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었다.

뜻깊은 2월에 들어와 일군들과 제염공들은 소금생산에 불리한 날씨조건에 맞게 증발지들에서 증발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매일 많은 량의 소금을 생산하고있다. 안제혁동무를 비롯한 지휘부의 일군들이 전투현장에서 앞세를 메고 지휘를 능숙하게 하면서 소금생산자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관철할 일념안고 떨쳐나선 제염소의 일군들과 소금생산자들은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할 결의를 안고 힘찬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고성군과 안변군, 천내지구탄광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시, 군, 기업소들의 소금생산작업반들에서 생산을 늘이기 위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천내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소금생산작업반들에서는 증발지들과 결정지들에서의 물조절과 면고루기 등 소금밭관리를 과학기술적요구대로 빈틈없이 진행하여 생산에서 제일 앞선 단위로 이름떨치고있다.

안변군과 고성군의 소금생산작업반들에서는 제염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 사업에 힘을 넣고 자체의 힘으로 유리한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면서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통천군을 비롯한 시, 군들의 소금생산작업반들에서도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면서 소금생산에서 날마다 높은 실적을 거두고있다.

일군들과 소금생산자들은 더 높은 목표를 내걸고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불길을 지펴올리며 생산을 늘이기 위한 돌격전을 줄기차게 벌려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전력생산에서 련일 혁신

강계청년발전소 3호발전소에서

강계청년발전소 3호발전소에서 전력증산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력과 금속, 화학공업부문이 기치를 들고 나가야 합니다.》

강계청년발전소 3호발전소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영광의 일터이다.

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영웅발전기를 비롯한 발전설비들에 대한 기술관리에 힘을 넣어 전력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자!》라는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여러가지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뜻깊은 올해에 전력생산에서 전례없는 위훈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일군들은 대중의 앙양된 기세에 맞게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고 걸린 문제들을 솔선 앞장에서 풀어나가면서 전투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있다.

50명의 제대군인들이 현지학습반에 망라되여 기사의 자격을 받고 설비관리, 기술관리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그들은 영웅발전기를 비롯한 발전설비들에 대한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고 기술기능수준을 높여 1월 전력생산계획을 113%로 넘쳐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들의 뒤를 따라 로동자들도 두가 기술기능수준을 한등급이상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일군들은 로동자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기술학습의 날 운영을 정상화하고 기술학습강사들의 수준을 높여주는데도 힘을 넣고있다.

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콤퓨터에 의한 실시간전력감시체계를 받아들여 운영관리의 과학화실현의 전망을 열어놓은데 맞게 기술혁신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시료의 힘과 지혜를 합쳐 기계식조속기를 전기조속기로 개조하였다. 이와 함께 수자식류량계를 도입하고 적외선수위측정장치를 개발하여 정확한 효률을 측정하고 합리적인 부하분배를 실시하면서 고효률, 고수위운전을 보장하고있다.

운영1, 2, 3, 4작업반의 로동자들은 영웅발전기의 설비보수를 책임적으로 하고 근무성원들도 표준조작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발전기에 만부하를 걸고있다.

보수작업반의 로동자들도 발전설비들과 구조물들에 대한 대보수와 소보수를 책임적으로 보장하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김순홍

올해의 첫 소금을 생산

원산제염소에서

온 나라가 강원도정신의 불길높이 일터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때에 원산제염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뜻깊은 2월에 올해의 첫 소금꽃을 피우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정초부터 새해의 행군길에 떨쳐나 헌신적인 투쟁을 벌려온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지난 2월초부터 첫 소금을 생산하기 시작하여 보름 남짓한 기간에 많은 량의 소금을 생산함으로써 올해 높이 세운 소금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화학공업은 공업의 기초이며 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소금생산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소금생산을 늘이기 위한 시, 군별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총화평가사업을 잘하는 한편 일군들이 현지에 내려가 걸린 문제를 알아보고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로력과 전기보장대책, 소금생산에 필요한 설비, 공구보장대책을 제때에 세워주며 모든 소금밭면적에 대한 뚜보수와 면고루기 등 생산준비를 앞당겨 끝내는데 총력량을 집중하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소금생산지휘부에서는 전투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작전을 통이 크게 펼치고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일군들과 소금생산자들은 앞선 소금생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기술을 끊임없이 혁신하여 뜻깊은 광명성절을 앞두고 지난해보다 첫 소금꽃을 보름이나 앞당겨 피우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들은 고압전동기와 대형뽐프들을 만가동시켜 예비저수지들마다에 바다물을 채워놓고 결정지들마다에 타일깔기를 새롭게 진행하여 질좋은 소금을 생산할수 있는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었다.

뜻깊은 2월에 들어와 일군들과 제염공들은 소금생산에 불리한 날씨조건에 맞게 증발지들에서 증발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매일 많은 량의 소금을 생산하고있다. 안제혁동무를 비롯한 지휘부의 일군들이 전투현장에서 앞세를 메고 지휘를 능숙하게 하면서 소금생산자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관철할 일념안고 떨쳐나선 제염소의 일군들과 소금생산자들은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할 결의를 안고 힘찬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고성군과 안변군, 천내지구탄광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시, 군, 기업소들의 소금생산작업반들에서 생산을 늘이기 위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천내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소금생산작업반들에서는 증발지들과 결정지들에서의 물조절과 면고루기 등 소금밭관리를 과학기술적요구대로 빈틈없이 진행하여 생산에서 제일 앞선 단위로 이름떨치고있다.

안변군과 고성군의 소금생산작업반들에서는 제염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 사업에 힘을 넣고 자체의 힘으로 유리한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면서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통천군을 비롯한 시, 군들의 소금생산작업반들에서도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면서 소금생산에서 날마다 높은 실적을 거두고있다.

일군들과 소금생산자들은 더 높은 목표를 내걸고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불길을 지펴올리며 생산을 늘이기 위한 돌격전을 줄기차게 벌려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품질검사의 현대화를 적극 추동

국가품질감독위원회 중앙계량과학연구소에서

최근 국가품질감독위원회 중앙계량과학연구소에서 국산화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품질검사의 현대화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연구기관들과 교육기관들에서 현대적인 검사기술수단, 계량계측수단들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통하여 발전된 검사수단들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계량과학을 발전시키고 계량계측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며 모든 생산과 경영활동을 과학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계량과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을 모든 연구사업의 주선으로 틀어쥐고 국가적인 계량검정체계를 세우는데 필요한 현대적인 검정장치들과 국제규격에 맞는 표준계량수단들, 공업용측정계기들을 우리 식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광학측정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광전비색계를 국산화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광전비색계는 보건, 식료공업 등 여러 부문에서 물질들의 정성 및 정량분석에 리용하는 전형적인 검사수단이다.

과학자들은 우리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광전비색계를 국산화할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핵심부분인 분석파장선택과 계기조정을 프로그람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줄기차게 벌렸다.

이 과정에 수입에 의존하던 광전비색계를 우리 식으로 훌륭히 제작완성하였다. 이와 함께 이미 리용하여오던 낡은 상사식비색계들을 프로그람화된 현대적인 수자식비색계로 개조하여 그 성능을 훨씬 개선하였다.

하여 보건부문과 식료공업부문에서 검사의 정확성과 믿음성을 담보하고 식료품의 질과 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수분측정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김형직사범대학 과학자들과의 창조적협조밑에 농업부문에 절실히 필요한 국제적기준의 알곡수분측정기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완전히 국산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과학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비상한 애국적열정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수년간에 걸치는 고심어린 연구사업과정에 알곡수분측정계기가 자기의 성능을 원만히 발휘할수 있도록 알곡수분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과학적인 눈금새김방법을 확립함으로써 9가지 품종의 알곡수분량을 정확히 측정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류량측정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가스경보기들의 측정정확도를 검사할수 있는 우리 식의 가스경보기검정장치를 제작하고 과학적인 검정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탄광, 광산들에서 메탄가스와 같은 유해가스에 의하여 발생되는 각종 사고들을 방지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담보를 마련하였다.

이밖에도 온 나라에 력학부문의 표준단위를 전달해주는 사명감을 자각하고 국제규격에 맞는 표준계기들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온 력학측정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이 1t까지의 힘을 정확히 잴수 있는 10kN힘표준기를 훌륭히 제작한것을 비롯하여 많은 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이 승용차들에 설치된 거리 및 자동료금계산기검정장치, 수자식자석밀도측정기와 같은 우리 식의 검정장치들과 국제적수준의 표준계기들을 개발함으로써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해나가고있다.

박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여러 나라 정당지도자들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 양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김 정 은 각 하 께

각하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반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각하의 탄생 75돐에 즈음하여 적도기네민주당 전체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적도기네민주당 창건자, 위원장인 오비앙 느게마 므바소고각하의 이름으로 각하께와 그리고 각하를 통하여 조선로동당과 전체 조선인민에게 충심으로 되는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저희들은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그이께 경의를 드리면서 귀국이 이날을 성대히 경축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적도기네민주당 총비서

헤로니모 오싸 오싸 에꼬로

2017년 2월 3일 말라보

평 양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

존경하는 동지

저는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뜻깊은 날인 김정일동지의 탄생 75돐에 즈음하여 메히꼬로동당 전체 당원들과 저자신의 이름으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국제정치정세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선군정치를 펼치시고 사회주의조선을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침략과 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면서 나라의 자주권과 조선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시였습니다.

저희들은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들은 국제정치사에 영원히 빛날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 기회에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을 승리에로 령도하시는 당신의 고귀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메히꼬로동당 전국지도자

알베르또 아나야 구띠에레스

2017년 2월 7일 메히꼬

평 양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 정 은 각 하 께

각하

저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정일각하의 탄생 75돐에 즈음하여 말리련대성과 정의를 위한 아프리카당 전체 당원들과 그리고 저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정일각하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총진군을 향도해나가는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과 더불어 영생하고계십니다.

저는 이 기회에 최고령도자각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것과 강국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말리련대성과 정의를
위한 아프리카당 위원장

띠 에 모 꼬 쌍 가 레

2017년 2월 7일 바마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총련조직과 단체들에서 축전들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총련조직과 단체들에서 축전들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재일본조선상공련합회 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 중앙상임간사회,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일본조선인교육회 중앙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 중앙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중앙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인체육련합회 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문화예술가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일본조선인의학협회 중앙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일조선인정화통일협회,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 중앙상임리사회를 비롯한 총련의 중앙단체들과 산하조직들, 조선신보사, 조선통신사, 학우서방, 금강산가극단, 동해상사주식회사, 금강보험주식회사, 조일경제교류촉진회, 동포결혼상담중앙쎈터 등 사업체들 그리고 총련의 각 지방본부들, 조선대학교와 각급 재일조선학교들에서 축전들을 드리였다.

축전들은 민족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을 맞이하여 사무치는 그리움과 한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백두산대국의 찬란한 미래를 펼쳐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가시여 어버이장군님의 유훈과 생전의 념원을 조국땅우에 찬란한 현실로 꽃피우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한평생은 주체위업, 선군혁명위업의 백승의 력사를 창조하시고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억년기틀을 마련해놓으신 절세의 애국자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였다고 축전들은 칭송하였다.

축전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가슴가슴에는 어버이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빛내여나갈 철석의 신념과 결의가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고 밝혔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의도대로 뜻깊은 올해를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는 위인칭송의 해로 장식하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2015년 5월25일서한을 비롯한 강령적말씀들을 전면적으로 관철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가는 전환의 해, 일대 투쟁의 해로 되게 할것이라고 축전들은 강조하였다.

축전들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총련조직안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대오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조직을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끄떡없는 애국애족의 성새, 믿음직한 성들로 반석같이 다져나갈 불같은 열의에 충만되여있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재일동포들과 맺으신 뜨거운 정과 혈연의 력사를 변함없이 이어나가며 애국충정의 본태를 계속 빛내여나감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승승장구하는 조국과 더불어 총련의 위용을 더 높이 떨쳐나갈것이라고 축전들은 강조하였다.

축전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재일동포들의 행복을 위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옥체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본사기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을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1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차상보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을 만나 동포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관계무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베를린

도이췰란드련방공화국 대통령

프랑크-왈터 슈타인마이어각하

나는 당신이 도이췰란드련방공화국 대통령으로 당선된것과 관련하여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발전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면서 귀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6(2017)년 2월 13일 평 양

아슈가바뜨

뚜르크메니스딴 대통령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함메도브각하

나는 당신이 뚜르크메니스딴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뚜르크메니스딴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리익과 념원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되리라고 믿으면서 나라의 번영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6(2017)년 2월 14일 평 양

광명성절경축행사 여러 나라에서 진행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민주콩고에서는 경축모임이, 로므니아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에 대한 독보회가, 에티오피아에서는 업적토론회가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비롯한 우리 나라 도서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자랑찬 현실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정계, 사회계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태양절 및 광명성절경축 민주콩고준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콩고공산당 총비서 보스와 이써뮤얼 쎌베르는 백두산절세위인이신 김정일령도자의 탄생 75돐에 즈음하여 세계 진보적인류는 그이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백두산에서 광명성으로 솟아오르신 김정일령도자는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 걸출한 사상리론가이시다.

그이께서는 한평생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계시면서 사회주의를 수호하시고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그이의 업적은 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아로새겨질것이다.

오늘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김정일령도자의 강국건설구상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시기 위하여 정력적인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고계신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만리마속도로 세계를 진감시키고 진보적인류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

로므니아와 에티오피아에서 진행된 독보회와 토론회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사상리론업적과 선군령도업적을 격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비약하는 조선의 현실

혁명적사상공세로 만리마시대 본보기정신의 위력을 더욱 높이 떨쳐나가자

강 원 도 사 상 일 군 회 의 진 행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의 전구마다에 만리마시대의 본보기정신, 강원도정신이 세차게 맥동치고있다.

자력갱생선구자의 영예를 떨쳐가고있는 강원도의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를 앞장에서 받드는 기수, 돌격대가 되여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해나갈 드높은 혁명적열의에 충만되여있다.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만리마속도창조대전에서 강원도정신을 더욱 발양시켜나가기 위한 강원도사상일군회의가 19일 원산시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동지와 박정남 강원도당위원회 위원장, 도안의 당, 근로단체 책임일군들, 당선전일군들, 모범적인 학습강사, 강연강사, 선동원, 5호담당선전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과 당정책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분석총화하고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드높이 올해의 전민총돌격전에서 강원도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이 토의되였다.

보고를 리광철 강원도당위원회 부위원장이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려는 강원당인민들의 결사의 투쟁정신을 새로운 시대정신, 강원도정신으로 명명해주시고 온 나라에 내세워주신것은 도안의 전체 인민들이 받아안은 더없는 영광이고 긍지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강원도정신은 사상을 혁명승리의 만능의 보검으로 틀어쥐시고 사상중시로선을 일관하게 구현하여오신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심어주시고 폭발시켜주신 우리 시대의 혁명정신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강원도인민들을 불굴의 정신력의 창조자, 자력갱생의 선구자로 키워주시였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이 준엄한 시련을 겪고있던 어려운 시기에 강원땅에 강력한 수력발전기지를 일떠세울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도안의 일군들과 인민들이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혁명적신념을 가지고 대규모발전소들을 련이어 건설하도록 담대한 배짱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선군혁명령도의 그치럼 바쁘신 속에서도 바람세찬 언제건설장들을 찾고찾으시여 일군들과 건설자들에게 백절불굴의 의지를 심어주시고 난관을 뚫고나갈 방향과 방도도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주체98(2009)년 1월 완공된 원산청년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시며 강원도인민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자력갱생의 선구자, 불굴의 투사들이라고 값높이 내세워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은 강원도인민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강원도인민들을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전국의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새로운 시대정신의 창조자로 내세워주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우리 당이 바라는 창조의 높이를 깊이 새겨주시고 그 실천에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기 위한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활력있게 벌려나가도록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밑에 강원땅에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원산구두공장, 갈마식료공장을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솟아났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강원도인민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자력갱생의 선구자의 영예를 깊이 간직하고 원산군민발전소건설에서 자력자강의 불패의 위력을 높이 발휘해나가도록 걸음걸음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지난해 12월 원산군민발전소를 돌아보시면서 강원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의 위대한 생활력을 실천으로 증명한 불굴의 투사,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라고 불러주시며 온 나라가 따라배울데 대한 최상최대의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보고자는 도안의 인민들이 위대한 우리 당을 옹위하는 천겹만겹의 신념의 장벽이 되여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경제봉쇄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대고조격전장들마다에서 떨친 혁혁한 위훈은 불굴의 정신력에 기초하고있으며 이것은 주체의 사상론의 정당성에 대한 과시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도안의 각급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 사상일군들이 지난 기간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 중심을 두고 사상사업, 정치사업을 참신하고 진공적으로 벌려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일으킨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항일의 연길폭탄정신, 전화의 군자리혁명정신으로 발전소건설을 오직 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고무추동하는 사상공세가 끊임없이 심화되는 속에 자력자강은 강원도인민들의 체질화된 투쟁기풍으로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사상일군들이 앞세를 메고 들끓는 전투장들에 뛰어들어 화선식선전선동으로 대중의 혁명열, 투쟁열을 고조시켜나가는 과정에 대담하고 통이 크게 목표를 내걸고 그 점령을 위해 시련과 난관도 맞받아 뚫고나가는 굴함없는 공격정신이 높이 발휘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보고자는 회의를 계기로 사상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이룩함으로써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답게 만리마속도창조대전의 앞장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승리를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상사업은 당의 기본임무이며 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방식입니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데 사상사업의 총력을 집중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교양을 진공적으로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의 뜨락에 이어놓고 당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며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불타는 충정을 다 바쳐나가도록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에서 강원도정신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쳐나갈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닭알에도 사상을 세우면 바위를 깰수 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기고 발전소건설장들을 비롯한 중요전투장마다에서 사상의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여 도안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각급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이 우리 당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사상사업방법을 구현하여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하던 나날에 이룩한 고귀한 경험들을 적극 살려 모든 선전선동활동을 참신하고 실효있게 진행해나갈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3 면 으 로 계 속

정론

전진하는 조선의 기상을 보라!

신화적인 건설속도가 창조되고있는 려명거리건설장에서

우리는 지금 세계가 지켜보는 려명거리의 초고층살림집 70층에 서있다.

비행기를 타고 창공에 오른듯 이렇듯 격정이 크고 거창한 산악을 딛고 굽어본들 이렇듯 벅찬 환희로 심장이 높뛸것인가.

그림으로 보고 말로 외우던 려명거리가 아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고 지구를 드르릉 울리며 선언하시듯 신심에 넘쳐 오르셨던 초고층의 절정, 흰구름도 발아래로 흐르고 지상의 사람들도 작게만 보이는 아찔한 이곳에 서시여 우리 원수님께서는 그 얼마나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던가.

온 평양시가 한눈에 안겨온다고, 미래과학자거리까지 다 보인다고, 얼마나 높은지 구름이 낀 날에는 구름우에 솟아있을것 같다고 그리도 벅찬 환희속에 잠겨계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이것은 기적이다. 아니 신화이다.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내 조국의 문명의 높이, 창조의 높이를 보여주는 이런 눈부신 초고층살림집들이 건축군을 이루며 새로운 거리를 형성하고있는것이야말로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새로운 건설신화이다.

해마다 변이 나는 나라, 날과 달이 기적으로 충만된 이 땅에서 아마도 려명거리는 그 기적의 첫자리를 차지할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해내고야마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우리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살림집으로 일떠선 70층초고층살림집만 놓고보자.

70층물조를 70여일만에!

인류건축의 발전력사를 거슬러보아도 아직까지 습식공법으로 지상우에 이런 초고층살림집을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그렇듯 빨리 일떠세웠다는 실례는 찾아볼수 없다.

려명거리의 기적은 70층초고층살림집에만 있지 않다.

70층 살림집광선에서 건설장전경을 무감하느라면 눈부신 문명의 새옷을 떨쳐입은 각양각색의 건축물들이 끝간데없이 펼쳐져있어 방대한 그 건설면적과 번개같은 속도에 또 한번 경탄이 쏟아져나온다. 통흥네거리의 영생탑방향으로 55층, 40층 등의 초고층건물들이 빼곡이 들어앉아 하나의 건축군을 형성하고있는가 하면 금수산태양궁전방향으로는 건물들이 정중성의 원칙에서 아담하면서도 보기 좋은 모양으로 높거니낮거니 조화롭게 자리를 잡았다. 여러개의 살림집구획이 설정되고 매 구획마다 자기의 고유한 특색이 살아나고있어 거리안에 거리가 생겼다고 길가던 사람마다 기쁨을 금치 못하니 이 얼마나 벌써부터 흥겨운 경사인가.

건설의 속도와 량에 있어서뿐아니라 건축의 실용성과 조형화, 예술화측면에서도 놀라운 경지를 갖추어가는 우리의 려명거리이다.

70층초고층살림집의 내부시공부터 살펴보자. 승강기가 마치 떴어있는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안전하고도 견고하게 설치된 최고급승강기를 타면 단 수십초만에 70층까지 오를수 있다. 매 집마다 달린 베란다는 너무도 커서 마치 공원을 방불케 하고 드넓은 공동살림방, 부모방, 부부방, 서재를 비롯한 살림방들과 부엌 등에는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의 원칙에 맞게 현대적인 가구들과 건구들이 갖추어져있다. 자본주의나라 백만장자들도 침을 흘리며 부러워할 정도이다.

에네르기절약형거리, 록색형거리의 표상을 가지려면 누구나 완공을 앞둔 여기 려명거리에 와보면 알수 있을 정도로 현대건축의 최신기술들이 적극 도입되고있다.

살림집들에 전면도입된 광섬형피뚜식태양열난방기술, 지열난방체계, 태양빛전지판이며 소리와 빛수감식조명기구들…

록색형거리의 면모는 또 얼마나 나날이 완벽하게 갖추어져가는것인가.

말만 들어도 풍성한 수확의 진미가 느껴지는 지붕온실들이며 베란다화대들, 특색있는 벽면록화, 온갖 꽃들과 푸른 잔디들이 조화를 이룬 화단들과 옥지들…그로 하여 거리의 풍치와 환경보호는 물론 사람들의 생활상편의 또한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된다니 이것이 어찌 우리 생활에 자리잡게 될 또 하나의 행복의 기적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려명거리건설의 기적중의 기적은 여기에 있지 않다.

제국주의의 전대미문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통쾌하게 짓부신 또 하나의 승리로 된다는데 바로 려명거리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있다.

려명거리, 이는 우리의 첫 수소탄시험과 위성발사를 결고들며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악랄한 대조선《제재결의》를 조작한 원쑤들, 간악한 그 악의 무리들이 별의별 형태의 제재와 압력을 가해온다 해도 조선은 끄떡없이 세계를 향해 나아간다는것을 힘있게 과시할 신심드높이 우리의 백두령장께서 단호히 쳐든 정의의 장검이였다.

전세계가 놀랐다. 극심한 봉쇄속에서 조선인민이 살아있는것자체가 기적이라고 각국의 언론들이 우리를 표시할 때 조선은 이렇게 더 높이, 더 빨리 세계를 향하여 질풍쳐달렸다.

모든것을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이것이 조선의 배심이고 승리를 락관하는 드놀지 않는 배짱이였다.

우리의 자강력 대 제국주의의 봉쇄, 이 첨예한 대결전에서 끝끝내 조선이 련전련승을 이룩해가고있다.

우리의 승리적전진에 기겁한 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생명권, 생존권, 발전권을 통채로 강탈하려고 가장 잔인하고 비렬한 《제재》에까지 매달리고있지만 보라, 우리의 려명거리는 조선인민의 존엄의 탑마당, 사회주의승리의 기념탑마당 높이 솟아 빛나지 않는가.

아마 이 시각 원쑤들은 저들의 어리석은 오산에 비명을 지르며 치욕의 눈물을 씹을것이다.

뜻하지 않은 자연의 대재앙을 카시기 위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가 개시되였을 때 원쑤들은 려명거리건설에 어지간히 힘을 소비했기때문에 이 전투에서의 성과는 기대할수 없다고 뇌까렸다. 그와는 반대로 내 조국의 북변땅에 전화위복의 승리의 기발이 나붓기고 또다시 려명거리건설이 전개되자 이번에도 또다시 자연재해를 가시기 위한 투쟁에 조선이 많은 물적자원을 소비했기때문에 려명거리건설이 지연될것이라고 휘소리쳤다.

그러나 승리는 언제나 조선의것이였고 패배는 언제나 제국주의의것이였다.

불러만 보아도 자랑스럽다. 내 나라의 곳곳에서 죽도록 쏟아져 려명거리로 흘러든 우리의 철과 우리의 세멘트, 우리의 건재들, 이것이야말로 원쑤들의 《제재포위환》에 과녁구를 낸 자력의 강위력한 폭탄, 정의의 《연결폭탄》들이 아니겠는가.

물론 우리의 막강한 국력에 대해 말할 때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에 대해 자부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그보다 더 센 힘, 내 조국의 진짜잠재력은 그 한계를 잴수 없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에 있었다.

당이 바라고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하늘에 다리를 놓아서라도 기적의 탑을 쌓으리라. 조선로동당의 결심은 곧 실천이고 승리라는것을 우리들의 투쟁으로 증명하자.

이런 맞받아나가는 공격정신, 쓰러지면서도 붉은기를 놓지 않는 결사의 정신으로 우리의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이 쌓아올린 신념의 장벽, 정신력의 산악이 바로 우리의 려명거리이다.

세계를 놀래운 미래과학자거리에 비해 그 규모와 공사량에 있어서 두배가 훨씬 넘는 건설량, 허나 해쳐나가야 할 곤난이 몇배로 증가될수록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은 더욱 고조되였다.

우리는 이번 쉬제집에 군인건설자들의 땀방울이 층층이 슴배인 70층초고층살림집의 계단을 다 밟아보았다.

무려 1 000여개의 계단, 높이만도 200여m, 땔물으로도 40분동안 땀으로 온몸을 흠뻑 적시면서 올라야 했다. 그 높은 공사장을 하루에 거의 열번씩 수십kg이나 되는 물동량을 지고 올랐으니 이런 불굴의 《건설마라손》에 대한 이야기 이 땅 아닌 그 어디서 들어보았던가.

《걷는자는 비기라, 만리마속도 떠진다.》고 쉐치며 아찔한 그 70층초고층에 고공발판을 대달고 건설장의 《수레개》되여 더 높이, 더 빨리 날던 용감한 축조명수들은 그 몇몇인가. 《직사포를 고지에로!》라고 쉐치던 전화의 용사들처럼 낡은 건물의 해체를 위해 지붕뜨대기에 굴착기를 올려놓고 한치한치 건물을 까부시며 결사적으로 싸우던 불사신의 그 모습들을 우리 어찌 이 하나의 글에 다 담을수 있겠는가.

백열전의 그 나날 사망을 언약한 고향의 처녀에게 한 건설자가 편지대신 보냈다는 사연깊은 미대는 얼마나 만사람을 울리는것인가.

《이 미대가 바로 기계화전으로도 성차지 않아 초고층살림집골조공사의 나날 등에 지고 달렸던 미대요. 우리 이 미대를 한생의 지참품으로 삼고 조국을 위한 헌신의 한길만을 가기요. 결혼식날자는 려명거리준공식날로 하자는것을 약속합시다.》

조국과 인민에게 바친 사랑이 그대로 청춘의 더없는 자랑으로, 영원한 사랑의 언약으로 되는 이렇듯 순결하고 뜨거운 심장과 심장에 대한 이야기 천이던가 만이던가.

콩크리트타임의 나날 뜻하지 않게 혼합물이 쏟아져나오자 공사속도가 순간이라도 드디여지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다진 맹세를 지킬수 없다고 쉐치며 뿜어져나오는 혼합물을 몸으로 막아나섰던 그날의 《방탄벽병사》, 인민을 위해 크고 화려한 집을 지으면서도 자기들은 작은 가설천막을 지어놓고 그 《집》마저 비워놓은채 건설장에서 선채로 밥을 먹고 선채로 복잡에 들군 했다는 수많은 전투원들, 초고층 70층만장을 덮고서야 땅에 내려섰다는 군인들의 이야기…

진정 당에서 산을 옮기라면 옮기고 바다를 메우라면 메우는 결사관철의 정신을 지닌 우리 인민군군인들의 불굴의 정신력, 말이 아니라 헌신의 땀으로 사회주의의 승리를 고수한 청화시기의 이런 육탄용사들의 군상이 바로 오늘의 려명거리의 모습이리라.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자력으로 만난을 뚫고나가는 조선의 본때, 일심단결에 자력자강을 더한 힘! 이것이 바로 원쑤들이 제일 무서워 벌벌 떠는 진짜핵폭탄, 조선의 사상정신적수소탄이다.

려명거리!

그 이름처럼 바야흐로 빛을 뿌리게 될 내 조국의 새 거리, 려명거리의 아름다운 자태여!

그 눈부신 빛과 열을 안아오신분은 과연 어느분이신가. 시련의 장막을 단호히 찢갈기시며 이 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우뚝 올려세우신 기적의 창조자는 어느분이신가.

그이는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력사여, 새겨보자.

이 거리의 건설을 발기하신분도, 려명거리 그 이름을 몸소 지어주신분도, 이 거리의 설계가,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여 오늘의 눈부신 화폭을 안아오신분도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 아니시였다면 과연 그 누가 원쑤들이 미친듯이 몰아오는 제재와 침략의 소용돌이속에서 조선의 존엄과 본때를 만천하에 시위하며 려명거리건설을 단호히 선포하실수 있었겠는가.

정녕 백두산악과도 같이 드놀지 않는 백승의 그 담력과 배짱이 려명거리의 기초가 되고 억년기둥이 되였다면 그 집집의 계단들과 살림방들, 해빛넘치는 창가마다에 보석처럼 깃들어 빛을 뿌리는것은 인민사랑의 뜨거운 정과 열이다.

여기에 이런 수자가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비준해주신 형성안만 해도 수십차에 1 390여건,

때로는 당중앙위원회 집무실에서, 때로는 남모르는 현신의 길에서 려명거리형성안의 점과 선을 그어주시던 불멸의 그 모습이 내 조국의 땅과 푸른 하늘에 소중히 새겨져있다.

자나깨나 그이의 가슴속에는 행복에 웃음짓는 인민의 모습뿐,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력사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하시려는 불같은 열망뿐이시였다.

하늘처럼 여기시는 그 인민을 위해서는 사지관에도 웃으며 뛰여드실 우리 원수님의 헌신의 모습 려명거리의 70층초고층살림집에도 새겨졌으니 사람들이여, 생각해보시라, 그날에 우리 원수님 오르셨던 그 아찔한 70층살림집은 건설중에 있는 살림집이였다.

하지만 그이는 그보다 더 높고 위험한 곳에도 나서실분, 인민이 리용할 마식령의 공중삭도에 오르셨고 그 위험천만한 시험발사장에도 서계셨던분, 그날도 우리 원수님께서는 인민의 행복한 모습만을 그려보고계시였다.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높이에서!

인민을 어떻게 하면 신성히 더 높이 떠받들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늘 마음쓰시는 우리 원수님의 그 진정 그이께서 몸소 놀려보신 승강기의 시동단추며 그 높이를 가늠해보신 부엌의 찬장, 아늑한 서재의 산뜻한 그림에도, 살림집기단층에 뿌리박은 나무들에도 뜨겁게 어려있다.

정녕 려명거리는 단순한 콩크리트의 결합체가 아니라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를 삶의 좌우명으로 간직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은정과 헌신이 안아올린 인민사랑의 영원한 기념비이다.

하루빨리 완전무결한 문명의 새 거리를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망은 하늘에 닿아있다.

우리 원수님 그 얼마나 열렬히 호소하시였던가.

태양절전으로 려명거리건설을 기어이 끝냄으로써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국력을 남김없이 시위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전체 건설자들이여!

승리에로 부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돌격명령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마지막결승선을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자.

당앞에 명세다진 태양절까지는 50여일 남았다.

태양절.

그려만 보아도 가슴설레인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5돐이 되는 그날과 더불어 려명거리완공의 만세소리는 승리의 개가마냥 높이 울리고 금수산태양궁전과 잇닿은 거리의 꽃밭들과 집집의 화대마다 온갖 꽃 무리져 만발하리라.

우리의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만복의 웃음짓는 인민의 모습 보시며 더 환히 웃으시게 건설자들이여, 문명의 새 집들을 정성다해, 사랑다해 꾸려가자.

모든 건설물을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드린 70층초고층살림집수준에서!

이런 기준을 스스로 마음에 새기고 인민을 위한 창조물에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는 군인건설자들의 모습은 정말 볼수록 감동을 자아낸다.

매 살림집마다 그들이 손바닥이 닳도록 쓸고 닦는 담당구간이 있고 기단층과 베란다화대에 심은 나무마다에는 《나무이름:향나무 관리자이름:박경진》과 같은 표쪽들이 걸려있다. 추위에 얼세라 알뜰살뜰 나무밑동에 감아놓은 벼짚나래는 또 얼마나 많은 생각을 자아내는가. 인민들이 거닐게 될 거리에 티검불 하나 있을세라 하루에도 그 몇번 비질을 하는 처녀병사들의 모습을 보느라면 우리 인민군대의 그 수고에 머리가 숙어진다.

려명거리의 정사는 온 나라의 정사라고 기쁨에 들썩이며 수도 평양의 녀인들이 《려명거리잔디》라는 글발을 써붙이고 정성껏 가꾸어온 애국의 그 푸른 모들도 머지않아 려명거리의 윤치를 더욱 돋굴것이니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승리에로 나아가는 이 기세, 이 열풍을 과연 무슨 힘으로 막을수 있을것인가.

려명거리완공의 테프는 다같이 결승선에 들어서야 끊을수 있다.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의 불길드높이 솟는 힘 하나로 합쳐가며 군민협동의 발걸음소리, 전민총동원의 기상 더 요란히 떨치자.

온 나라 천만군민이여, 려명거리건설장에 나래치는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상에 발을 맞추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 전선에서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세계가 또 한번 전진하는 사회주의조선을 우러러보게, 제국주의자들이 쓰디쓴 패배감에 몸부림치게 통쾌한 승전고를 요란하게 울리자. 우리가 가는 앞길을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 경사로운 태양절의 그날 우리 서로 승리자로 만나자.

박 옥 경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부강조국건설에 헌신의 땀을 아낌없이 바쳐갈 결의에 넘쳐있다. —독장청년탄광에서—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2면에서 계속

그는 모든 사상일군들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군중속에 들어가 정신력발동의 보술을 찾으며 전격의 앞장에서 대중을 위훈창조에로 이끌어나가는 시대의 기수, 만리마선구자가 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불타는 충정의 한마음을 안고 사상의 위력, 일심단결의 위력,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강원땅을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강성번영하는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당의 의도와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사상사업을 참신하고 심도있게 벌려 대중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던 나날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원산군민발전소건설을 비롯한 전투장들마다에 세차게 휘몰아친 사상전의 불바람속에서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절사관철의 투쟁정신과 자력자강의 투쟁기풍을 체질화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게 준비되였다고 말하였다.

이 과정에 혁명과 건설에서 사상의 위력, 대중의 정신력을 높이 발양시켜나갈데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을 심장깊이 체득하였으며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한 그 기백으로 투쟁해나갈 때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앞당길수 있다는 확신을 간직하게 되였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당의 믿음과 기대를 심장깊이 새겨안고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해나가기 위한 올해의 전민총돌격전에서 혁명적사상공세로 도안의 인민들의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나가는 투쟁의 돌풍이 되고 전진의 나팔수가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사상사업을 오분열도식, 행사식, 소방대식으로가 아니라 침입식사상사업방법의 요구대로 공세적으로 벌리며 당에서 중시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교양, 선동, 강연, 출판보도를 비롯한 선전선동방법과 수단들을 총동원할것이라고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강원땅에 수령결사옹위, 절사관철의 혁명적기풍이 차넘치게 하는데서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감으로써 새로운 기적과 위훈으로 만리마선구자대회를 뜻깊게 맞이할 불타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회의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강원도사상일군회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깊이 새기고 사상전의 불길높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시대정신의 위력을 더욱 높이 떨쳐나갈 도내 사상일군들의 철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강원도정신의 불길높이 시대의 앞장에서 폭풍쳐 내달리자는 내용의 록화편집물을 시청하였으며 강원도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하였다.

이날 원산시 해안광장에서는 도안의 방송선전차들의 출동식이 있었다.

방송선전차들에서 힘있게 울려퍼지는 선전일군들의 격동적인 선동과 혁명적노래들은 당의 령도따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반드시 실현하려는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혁명열, 투쟁열을 더욱 북돋아주었다.

【조선중앙통신】

집중적인 사상공세로 협동벌이 끓는다

서흥군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서흥군 일군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시키기 위한 집중적이며 련속적인 사상공세를 드세게 들이대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당위원회를 비롯한 군급기관의 많은 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협동벌에 달려나가 농업근로자들을 당면한 영농전투에로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령도밑에 모든 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아래에 내려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군중을 발동시키고 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리던 1970년대의 약동하는 기상이 온 나라에 차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군급기관의 모든 일군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협동농장들에 달려나가 농업근로자들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는 사상공세를 들이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정연성, 주성철동무를 비롯한 군당위원회책임일군들은 협동벌에 나가는 일군들모두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의 진수를 깊이 체득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 기간 농촌에 나가 정치사업을 벌리는 과정에 거둔 성과와 교훈을 분석총화하고 농장원대중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서한에 제시된 과업관철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게 하였다.

지난 1월초 군당위원회에서는 법안협동농장, 금릉협동농장, 운천협동농장 등 10여개 협동농장 작업반, 분조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군급기관 일군들에게 군안의 모든 협동농장 작업반, 분조들을 분담시키고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들어가 입대 사상공세를 들이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이와 함께 자기들이 맡은 단위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걸린 문제들 특히 영농물자들과 농장원들에게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품을 들여 마련하도록 하였다.

만단의 준비를 갖춘 군당위원회와 군급지도기관들의 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협동농장들로 달려나갔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법안협동농장의 제7작업반과 제8작업반에 나간 군당책임일군은 영농준비상태를 알아보고 많은 영농물자들을 넘겨주었다.

그리고 농장원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농장에 깃들어있는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 높은 알곡생산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방도들을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이어 로력혁신자인 김은철동무의 가정을 방문하여 성의껏 마련한 생활필수품들도 넘겨주면서 고무해주었다.

신당협동농장 제3작업반에 나간 군당위원회일군은 신인철동무의 가정을 비롯한 작업반농장원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그들이 모든 일에서 앞장서도록 적극 고무해주었다. 그리고 밤늦도록 작업반원들과 함께 거름생산과 실어내기작업을 하면서 그들의 열의를 북돋아주었다.

군인민위원회책임일군인 김동국동무는 금릉협동농장에 도착한 즉시 포전을 돌아보며 농사차비정형을 료해하고 봄갈이를 깊이해야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높일수 있다는데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해주었다. 그리고 농장원들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모두가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올해 농장앞에 맡겨진 알곡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일군들은 미리 준비한 토양분석자료와 올해 봄에 예견되는 기상기후자료를 담당한 협동농장들의 농장원들에게 알려주면서 그에 맞게 품종선택을 바로하고 필지별특성에 맞게 비료주기를 과학적으로 할수 있게 도와주었다.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자욱이 깃들어있는 읍협동농장과 남한, 송월, 자작협동농장을 비롯한 10여개 협동농장들에 일제히 달려나간 군급단위의 일군들은 작업반, 분조들에 많은 영농물자들과 생활필수품들을 넘겨주고 농장원들과 함께 일도 하면서 올해농사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그들의 심장에 불을 달아주었다.

한편 많은 일군들의 안해들도 남편들과 함께 협동벌에 달려나가 가정에서 정성껏 마련한 물자들을 넘겨주고 농장원들과 일을 하면서 올해에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자고 고무해주었다.

이처럼 올해에 들어와 여러차례에 걸쳐 많은 군급기관,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가족들이 협동벌에 나가 수십만㎥의 비닐막막을 비롯한 여러가지 영농자재들과 15종에 수만점의 생활필수품을 넘겨주어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그리하여 군에서는 겨울철의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거름생산과 실어내기에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3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많은 영농물자를 마련하여 올해농사의 화고한 전망을 열어놓게 되였다.

특파기자 김천임

보름동안 2만여t의 니탄 생산, 포전들에 집중수송

굴지의 감자산지로 나날이 전변되고있는 백암군에서 감자밭들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항강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과감한 돌격전으로 뜻깊은 2월에 들어와 보름동안에 2만여t의 니탄을 생산하여 백암군 덕로지구의 감자밭들에 집중수송하였다.

농업전선을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으로 정한 당의 의도를 가슴에 새긴 일군들은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칙의 일본새로 전투장마다에 혁명적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였다. 특히 구체적인 토양분석자료에 기초하여 생산된 니탄을 필지별, 포전별특성에 맞게 실어내기 위한 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도와 시, 군들에서 백암땅으로 달려나온 자동차운전사들이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겨울철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자체로 예비부속품을 충분히 갖추어놓고 매일 수송계획을 2배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혜산시안의 기관, 기업소, 공장의 종업원들은 북방의 엄혹한 추위와 난관을 박차고 감자밭들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백암군안의 농장들에서는 눈이 덮여있는 북부고산지대의 유리한 조건에 맞게 각종 운반수단들을 리용하여 수송이 불리한 감자포전들에 정보당 수십t씩의 니탄을 실어냈다.

【조선중앙통신】

인민들에게 더 많은 목재가공품을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우시목재가구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태양의 빛발따라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제21차 김정일화축전장에서

불멸의 꽃바다와 더불어 태양민족은 무궁번영하리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백두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우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실로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시였습니다.》

우리 조국땅우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창조와 변혁의 새력사가 펼쳐지는 만리마시대, 무궁번영하는 김정은시대를 축복하며 수도 평양에서 제21차 김정일화축전이 성대히 진행되고있다. 이번 축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5돐을 맞으며 진행되는것으로 하여 만사람의 가슴속에 더더욱 의미심장하게 안겨온다.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75돐을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불멸의 꽃바다로 더욱 환희롭게 경축하는것은 김일성, 김정일조선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감동깊은 화폭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만이 누릴수 있는 더없는 행복이다.

우리는 제21차 김정일화축전장을 돌아보면서 2월의 이 강산을 붉게 물들이며 아름답게 피여난 충정의 꽃바다우에 빛나는 태양의 꽃이야말로 불세출의 선군태양을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우리 인민들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열화같은 경모의 마음,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리를 앞당겨갈 천만군민의 불타는 맹세가 어리여있는 위인칭송의 꽃, 신념의 꽃임을 다시금 새겨안게 되였다.

충정의 꽃바다우에 빛나는 태양

저 하늘의 태양이 있어 이 세상 만물이 소생하듯이 위대한 수령을 모셔야 민족의 운명도, 인간의 참다운 삶도 꽃펴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이시야말로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이 땅우에 인민을 위한 사회주의락원을 펼쳐주시고 세계의 자주화를 위해 온넋을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 인류의 태양이시다.

어느 전시대를 돌아보아도, 그 누구를 만나보아도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흠모의 메아리가 끊없이 울려나오고있다. 이번 축전장을 돌아본 참관자들의 입에 제일 많이 오른 말을 꼽는다면 아마도 태양이라는 두 글자일것이다.

《김정일화로 떠오르는 태양을 형상한 전시대를 바라보니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사무칩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높이 모신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 서있는듯 한 심정입니다.》

《불멸의 꽃속에 훌륭히 형상되여있는 백두산밀영고향집을 바라보니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미소가 어려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영상을 정중히 모신 인민무력성과 외무성전시대 등 수많은 전시대들에서 참관자들은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 발걸음을 쉬이 떼지 못한다.

우리 인민들모두가 심장에 안고 사는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이 끊없이 빛발치는 불멸의 꽃바다.

천만의 가슴속에 끓어번지는 충정의 마음이 그대로 어려있는듯 붉게붉게 피여난 김정일화, 그 꽃잎에 맺힌 맑은 물방울에도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순결한 마음이 비낀듯…

바로 그 마음들에 떠받들려 20년전에 세상에 없는 불멸의 꽃축전의 시원이 열리지 않았던가.

그때 외국의 한 인사가 터친 격정의 토로를 적는다.

《김정일화는 세계적인 꽃이기에 김정일화전시회는 머지않아 반드시 세계적인 전시회로 될것입니다.》

충정의 꽃바다우에 빛나는 태양!

그 충정의 꽃바다는 우리 나라뿐아니라 세계의 방방곡곡으로 끝없이 이어지으며 그 무엇으로써도 가늠할수 없는 거대한 힘으로 온 지구를 감싸안고있다.

절세위인의 강국념원과 맹세의 대하

축전장에 펼쳐진 태양의 꽃바다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위업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리를 앞당겨오려는 천만군민의 불타는 맹세도 뜨겁게 비껴있다.

지난해의 격동적인 사변들이 훌륭히 형상되여있는 수많은 전시대들을 돌아볼수록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이 빛나는 현실로 꽃펴나고있는 오늘의 자랑찬 현실이 가슴마다에 안겨와 끝없는 격정과 흥분을 금할수 없다.

무궁막강한 군력의 상징인양 선군의 총대를 형상한 전시대들이며 당 제7차대회가 열린 지난해를 승리자의 해로 빛내이기 위해 련속적인 철야전군을 벌려 일떠세운 자랑찬 창조물들을 형상한 전시대들앞에서 그 누구인들 심장이 높뛰지 않으랴.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소리높이 구가하는 교육위원회 전시대,

그앞에 서면 누구나 얼마전 평양초등학원을 찾으시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생각이 간절해진다고, 이렇게 회한하게 건설된 학원을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 보여드리지 못하는것이 정말 안타깝다고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되새겨보군 한다.

끝간데없이 펼쳐진 파수의 바다를 바라보시면서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남기신 애국유산, 애민유산의 하나이라고, 이곳을 지나다닐 때면 장군님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진다고 절절히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정녕 우리 원수님 심중에는 위대한 장군님 생각뿐이였다.

인민보안성전시대에 새겨진 《우리 장군님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가》의 글발이 다 말해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을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를!

행복에 겨운 인민들을 바라보시는듯 환하게 웃으시는 어버이장군님의 사진문헌을 우러를수록 그이의 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시려 멀고 험한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가 어려와 가슴뜨겁다.

대지를 박차고 날아오른 지구판측위성 《광명성-4》호, 《자강력-250》이라는 글발이 새겨진 새형의 풍력발전기, 창공을 치솟으며 솟구치는 려명거리의 웅장한 모습,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전하며 조국의 북변땅에 일떠선 새 집들도 방불히 안겨온다.

그뿐이 아니다.

보건산소공장과 류경안과종합병원, 황금해의 《이채어정》, 주체화된 생산공정들에 대한 훌륭한 형상으로 하여 불멸의 꽃바다는 더욱 세찬 격정의 파도를 일으킨다.

자력자강의 위력,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올해신년사과업관철에 총매진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여갈 불굴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전시대와 총련중앙상임위원회전시대를 비롯한 여러 전시대들에 해외동포들과 외국의 수많은 인사들과 단체들의 위인칭송의 마음이 어린 불멸의 꽃 김정일화가 수많이 전시되여있는것이다.

진정 한평생 조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초불처럼 태우시며 우리 나라를 세계의 상상봉에 우뚝 올려세우시고 세계자주화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전하며 김정일화는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

같은 결의가 세차게 굽이치고있는 금속공업성과 화학공업성의 전시대, 전세대 청년들의 영웅적인 투쟁전통을 이어 만리마선구자의 영예를 빛내여나가고있는 온 나라 청년들의 충정의 마음이 비껴있는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전시대…

진정 뜻깊게 형상된 전시대들은 오늘의 경이적인 현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을 위해 뿌리신 씨앗들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열과 정을 부어 가꾸시여 열매로 주렁지우신 숭고한 애국의 결정체이라는것을 실감있게 보여주고있다. 영원한 태양의 빛발따라 승리에서 더 큰 승리에로 비약하는 만리마시대의 숨결, 언제나 변함없이 당을 따라 사회주의한길로 나아가려는 천만군민의 신념의 맹세를 반영하고있다.

그렇다.

올해의 김정일화축전은 백두산절세위인의 한생의 업적을 더욱 깊이 새겨보게 하는 흠모의 대축전이며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회주의강국건설구상을 받들어 새해의 행군길에 과감히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같은 충정과 혁명적기상을 엿볼수 있게 하는 맹세의 대축전이다.

년대와 년대를 이어, 세기와 세기를 이어 사회주의 이 강산에, 온 누리에 끊없이 만발하는 불멸의 꽃 김정일화와 더불어 대를 이어 수령복, 태양복을 누려가는 우리 민족, 주체의 내 나라는 영원토록 무궁번영할것이다.

글 본사기자 주 령 봉
강 효 심
사진 본사기자 리 명 남

우러러따르는 한마음

《여기에 우리 마을이 있습니다》

축전이 시작된 첫날부터 오늘까지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물결이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으로 끝없이 흐르고있다.

축전장에 펼쳐진 어느 전시대나 그러하지만 룡해운성전시대도 참관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주고있었다. 굵고 붉은 줄기에 피여난 크고 아름다운 김정일화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장정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오성산과 철령의 굽이굽이를 형상한 전시대는 참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해설원의 이야기는 또 얼마나 가슴울리는가.

《여기 전시대아래부분에 형상된 폐스와 태양빛전지유람선, 무역집배는 지난해의 총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기간 우리 룡해운부문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자체의 힘과 기술, 자재로 만든 자력자강의 창조물들입니다.》

이때 탄성에 가까운 소년의 목소리가 해설원의 말허리를 꺾었다.

《선생님, 여기에 우리 마을이 있습니다.》

알고보니 그 소년은 희령시에서 온 학생이였다. 전시대에 형복의 불빛밝은 북부지역의 새 살림집들도 특색있게 형상되여있어 학생을 흥분시킨것이였다.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대담한 작전과 능숙한 지휘로 북부피해지역에 새 살림집들을 일떠세우는데도 기여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 눈에 띄는 훌륭한 성과를 이룩한 강종관, 천광식동무를 비롯한 룡해운성 일군들과 정무원들의 불타는 충정의 세계가 이렇듯 태양의 꽃 만발한 전시대에 뜨겁게 비껴흐르고있었다.

전시대에 비낀 뜨거운 진정

《꽃색갈이 정말 곱지요?!》

《정말 꽃들이 크고 아름답습니다.》…

수해방정성전시대앞에서 참관자들이 연해연방 터치는 감탄의 목소리였다.

그럴수록 원예사 김남옥동무의 눈앞에는 뜨거운 정과 믿음으로 오늘에로 떠밀어준 못 잊을 모습들이 삼삼히 떠올랐다.

불멸의 꽃을 키우는 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주고 재배공들이 꽃재배에 전심하도록 살뜰하게 보살펴주며 이끌어준 문응조, 리철동무를 비롯한 성일군들의 모습이였다.

기온이 갑자기 변할 때면 깊은 밤에도 온실로 달려오던 그 열정, 온실을 자주 찾으며 불멸의 꽃재배실태를 수시로 알아보고 사소한 문제들까지 일일이 대책을 세워주던 그 진정, 온실종업원들의 생활보장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며 많은 후방물자들도 안겨주던 웅심깊은 그 마음.

어찌 이뿐이랴.

지난해 뜻밖의 일로 하여 김남옥동무가 어려움을 겪고있을 때 힘과 용기를 안겨주던 일군들이였다. 하기에 온실종업원들은 그 마음까지 합친 뜨거운 정성을 김정일화재배에 바치였다.

원예사, 재배공들의 열정과 노력이 훌륭한 결실을 맺도록 아낌없이 고여온 수해방정성 일군들의 진정에 받들려 올해의 광명성절을 더욱 뜻깊게 장식하는 아름다운 불멸의 꽃들이 피여났던것이다.

끝없이 울리는 경탄의 목소리

제21차 김정일화축전장을 참관한 많은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이 경탄의 목소리를 터치였다.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련방특명전권대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시된 꽃들이 매우 아름답고 커다란 노력이 깃들어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조선인민의 진실하고 뜨거운 충정을 느낄수 있었다.

수리아아랍공화국 특명전권대사는 위인의 존함을 모신 김정일화가 참으로 아름답다, 나어린 학생들이 가정에서 정성껏 피워전시한 김정일화들을 보면서 자기 령도자를 그리워하는 조선인민의 마음을 보게 되였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전시대를 보면서 통일을 지향하는 조선인민의 마음이 얼마나 강렬한가를 더 잘 알게 되였다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한 중국사람은 축전장을 돌아본 소감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위인의 존함을 모신 꽃은 처음 본다. 한가지 꽃으로 진행되는 성대한 축전장도 처음 참관한다. 나도 김정일화를 키우고싶다. 김정일화를 키우면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을 체득하고싶다.

축전장을 찾은 어느 한 해외동포대표단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어느 전시대에서나 자력자강의 구호를 높이 들고 일떠선 조국의 숨결을 느낄수 있다. 이 축전장을 통해서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얼마나 세련된 령도를 펼쳐가시는가를 더 잘 알게 되였다. 날에 날마다 달라지는 조국의 모습을 여기 축전장에서 보게 된것이 정말 행복하다.

이렇듯 불멸의 꽃 김정일화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 가는 절세위인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끊없이 분출시키며 온 누리에 빛을 뿌리고있다.

본사기자

수 필

벗들의 심장속에 새겨진 명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불면불휴의 선군령도로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은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나에게는 지금도 대외문화련락위원회전시대에서 받은 감흥이 생생하다.

전시대에는 여러 나라 단체들과 벗들의 명의로 된 태양의 꽃들이 아름다운 꽃잎들을 활짝 펼치고있었고 그앞에서는 외국인들이 정중한 자세로 사진을 찍고있었다.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원 최금철동무는 이번 김정일화축전에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단체들의 명의로 된 김정일화가 출품되였다고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도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워하는 세계 진보적인류의 흠모심을 더 잘 알게 되였다고, 위원회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외국의 벗들의 그 마음까지 합쳐 김정일화를 더욱 아름답게 피우고 전시대를 훌륭히 형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이야기하였다.

김정일화들로 형상한 붉은 당기와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이 모셔져있는 금수산태양궁전, 당마크 등 전시대의 모든 형상요소들이 하나와 같이 눈길을 끌었다. 인류의 불멸절을 경축하여 축전장에 자기들의 명의로 불멸의 꽃을 전시한 여러 나라 단체들의 명칭들이 뇌리에 더욱 뜻깊게 새겨졌다.

몽골 김정일유치원, 스위스조선위원회, 프랑스조선친선협회…

정녕 날이 갈수록 위대한 장군님을 더욱 절절히 그리는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이 여기 불멸의 꽃축전장에 다 모여온듯싶었다.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하며 다른 전시대들을 바라보니 그곳에서도 많은 외국인들이 연방 사진을 찍고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나의 눈앞에는 언제인가 미국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랐던 글줄이 떠올랐다.

《김정일화는 진하고 순수한 붉은색의 꽃과 넓고 푸른 잎새, 굵고 든든한 줄기에 위대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력, 고매한 풍모를 지니신 김정일장군에 대한 인류의 끝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은 불멸의 꽃이다.》…

혼히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웠던 일을 사진에 담아 아름답게 추억한다. 아마도 저 외국의 벗들도 조국에 돌아가 뜻깊은 사진을 보며 사회주의조선에 대한 추억, 불멸의 꽃축전에 대한 추억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흠모의 정을 두고두고 되새기리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리라. 천하제일명화로 세계에 이름높은 김정일화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태양의 꽃에 비낀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상에 대하여.

그렇다. 그들이 심장에 안고 가는 김정일화는 절세위인에 대한 열렬한 그리움으로 불타는 인류의 가슴속에 수천수만의 김정일화로 활짝 피여나게 될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가슴부푸는 나의 눈앞에는 인류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이 가슴뜨겁게 안겨왔다.

본사기자

제21차 김정일화축전에 참가한 외국손님들과 재중동포들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제21차 김정일화축전에 참가한 외국손님들과 재중동포들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안고 만경대고향집에 꽃다발들을 진정하였다.

이어 그들은 력사의 집에 깃들어있는 절세위인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만경대일가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그들은 사진을 찍었다.

이밖에 그들은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등을 참관하였다.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연회 마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5돐에 즈음하여 15일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로씨야국가회의 로조선친선의원단 단장인 따이싸예브 련방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싸뷔 우말라또바 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뽄스딸렌 쁠리쉽스끼 전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를 비롯한 정부, 정당, 단체, 기관의 인사들, 로씨야련방민족근위군아까데미야협주단 예술인들이 초대되였다.

김형준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작품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또한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과 날로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자랑찬 현실을 소개하는 사진들을 돌아보았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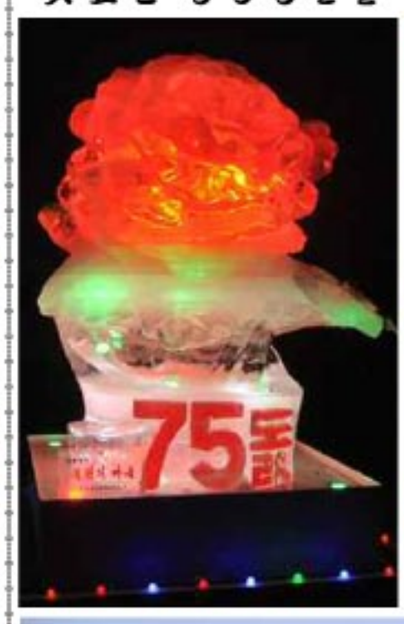
연설자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인류자주위업, 조로친선관계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표시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대통령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로친선협조관계의 끊임없는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연회에서는 로씨야예술인들의 공연이 있었다.

한편 이날 하바롭스크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에서도 연회가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대동강반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한 얼음조각들



본사기자 림 학 락, 김 진 명 찍음

필승의 신념과 의지가 만장약된 선군조선의 힘

민족의 천만년미래와 행성의 정화를 담보하는 최고의 안전장치인 우리의 핵억제력이 날로 더욱 강화되고있다. 일시적인 안락보다 영원한 강성번영을 위해 형언할수 없는 시련과 난관을 박차고 나아가는 선군조선은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또 하나의 위력한 핵공격수단을 마련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우리의 미더운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이 불과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자체의 지혜와 힘, 기술로 완성한 주체탄, 주체무기인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이 《핵전략자산의 총투입》이니, 《사상 최대규모》니 하면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불구름을 몰아오던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에게 불의 노성을 터뜨렸다.

강용한 인민의 자주적힘, 불굴의 기개인양 2월의 맑고 푸른 봄하늘가에 울려퍼진 그 장엄한 불뢰성은 그 어떤 역경이 백겹천겹 덧쌓인다 해도 한번 결심한 일은 끝까지 해내고야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강의한 신념과 혁명적의지는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수 없으며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힘찬 진군을 절대로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실증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우리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낼것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도 적극 기여할것입니다.》

우리 식의 새로운 전략무기체계가 또 개발됨으로써 우리 인민군대는 임의의 공간에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신속하게 전략적임무를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또한 우리의 로케트공업은 명실공히 액체로케트발동기로부터 대출력고체로케트발동기에로 확고히 전환되였으며 견본모방형이 아니라 개발창조형공업으로 비상히 강화발전되였다.

우리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계시며 고생도 시련도 달게 나누시고 신변의 위험마저 아랑곳없이 전략무기개발의 전과정을 진두지휘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는 그들의 불굴의 정신력과 무궁무진한 힘을 총폭발시켜 이처럼 통쾌한 단번성공의 시각을 맞이하게 하였다.

몇해전 남조선의 한 언론은 북의 로케트기술개발사업은 바로 백두밀림의 병기창에서 항일유격대원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정신적바탕으로부터 싹텄다고 하면서 《북은 오래전부터 미국이 제멋대로 전쟁을 도발하지 못하게 하고 만약 도발하는 경우 순식간에 미국의 심장부를 초토화하기 위한 무기들을 연구해왔다.》, 《분명한것은 그것이 우리 민족의 통일을 앞당기고 지구상에 평화가 깃들게 하며 미국이 잘못된 제국주의전략을 포기하게 하는 심멸적타격력으로 될것이라는것이다.》라고 평하였다. 다른 한 언론도 《북의 미룡개 특수한 힘》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가 위력한 특수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해온것은 세계 《최강》을 떠드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였다고 썼다.

국방력강화를 위한 우리의 조치는 원쑤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으로 내리치고 총을 내대면 대포로 맞서며 해으로 위협하면 그보다 더 위력한 정밀핵타격수단으로 짓누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변의 립장, 백두산식대응방식의 뚜렷한 과시이다.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에서의 완전성공으로 우리는 원쑤들의 침략적도전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고 민족의 자주권과 조선반도의 정화를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는 보다 강위력한 군사적힘을 갖추게 되였다.

반면에 적대세력들은 전률랑난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다.

《눈을 도사리고 지켜보았으나 북의 이동식발사현장을 도저히 포착할수 없었다.》, 《북의 미싸일을 발사론비단계에서부터 선제타격하는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이것이 이번 시험발사직후 적들속에서 울려나온 경악의 비명이다.

이미전부터 적진영내부에서는 핵공격능력을 날로 향상시켜나가는 북의 전략을 고려하면 북은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아랑곳없이 다양한 종류의 탄도로케트를 자기의 시간표대로 지속적으로 발사할것이라는 아우성이 터져나왔었다. 서방의 대조선전문가들도 북의 군사적조치들에 대해 성공인가, 실패인가를 론하던 시기는 지나갔다, 그러므로 북에 대한 대응책도 근본적으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미국과 괴뢰역적패당은 여론의 목소리에 귀를 틀어막고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한사코 부정하면서 우리를 해치려고 피를 물고 날뛰였다.

원쑤들의 극악무도한 핵위협공갈과 제재소동은 보다싶이 우리의 핵공격능력을 시시각각으로 강화하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핵무력이 보다 높은 종합적성능을 갖춘 정의의 핵보검으로 강화발전됨으로써 우리 조국은 기존핵렬강중심의 세계정치구도에 파렬구를 내고 국제정치흐름을 주도해나가는 동방의 핵강국으로 우뚝 솟아올랐다.

백두령장들의 손길아래 수십년세월 총포성없는 반미대결전을 벌려오면서 오직 승리만을 떨쳐온 최정예군대, 상용무기에 의한 국지전이나 전면전쟁, 전자전과 핵전쟁을 비롯한 어떤 형태의 대결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강력한 타격수단들과 필승의 전법을 완비한 강군, 바로 이것이 존엄높은 백두산혁명강군에 대한 세상사람들의 평가이다.

필승의 신념과 의지가 만장약된 선군조선의 힘은 그 누구도 무시할수 없게 되였다.

핵타격능력이 크고 강할수록 침략을 억제하는 힘이 그만큼 더 커지기마련이다. 강위력한 핵무력우에 정화도 있고 무강번영도 있으며 겨레의 행복한 삶도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열점지대인 조선반도에서 오늘까지 정화가 유지될수 있은것은 우리가 자위적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왔기때문이다.

절세위인들의 슬하에서 자라난 백두산혁명강군과 철옹성으로 다져진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 어떤 최첨단무기와 군사기술장비도 제힘으로 만들어낼수 있는 강위력한 국방공업에 토대한 우리의 핵억제력앞에서는 원쑤들의 그 어떤 정밀유도무기나 선제타격도 백을 출수 없다.

우리 조국의 강대한 힘을 더해주는 또 하나의 위력한 핵공격수단을 탄생시킨 우리의 새로운 전략무기의 시험발사와 관련하여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또다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긴급회의를 열고 그 무슨 《결의위반》에 대해 떠들어댔다. 괴뢰들도 《강력한 대응》이니 뭐니 하며 피대를 돋구었다. 그야말로 파렴치한 날강도들의 도발적궤변이 아닐수 없다.

우리의 이번 시험발사는 미국을 비롯한 반공화국적대세력의 날로 무분별해지는 핵위협소동에 대처하여 나라의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정상적인 자위적조치로서 그 누구도 시비질할수 없다.

적대세력의 그 어떤 발악적인 도전도 선군조선의 장엄한 전진을 막지 못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천만군민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노도쳐 나아가는 불패의 일심단결, 고난속에서 다져지고 또 다져진 백절불굴의 정신력과 영웅적기개, 그 어떤 강적도 단매에 쓸어버릴수 있는 무진막강한 백두산총대의 위력이 있는한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것이며 적들은 종국적파멸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

이것이 선군조선, 영웅조선의 엄숙한 선언이다.

허 영 민

범죄행적을 미화하는 뻔뻔스러운 광대극

지승길이 대분박인 괴뢰보수패당이 잔명부지에 급급한 나머지 해괴망측한 추태를 계속 부리고있다. 오는 6월말까지 괴뢰청와대가 주동이 되여 박근혜역도의 집권 4년간의 치적을 담은 그 무슨 백서라는것을 발간하려 하고있는것이다. 괴뢰들은 지금 그 협잡문서에 지난 4년간 박근혜가 《창조경제》, 《문화융성》, 《국민행복》, 《평화통일》 등의 《국정》과제들을 추진하면서 거두었다고 하는 《성과》들을 분야별로 묶어 쪼아박으려 하고있다.

역적패당의 이 어처구니없는 백서발간놀음의 시비를 따지기에 앞서 한가지 묻지 않을수 없다. 도대체 제정신이 있는자들인가.

지금 온 남조선땅은 박근혜심판투쟁으로 불도가니처럼 끓고있다. 집권기간 특대형범죄를 무수히 저지른 청와대마녀에게 당장 오라를 지어 력사의 심판대에 올려세우라는것이 남녘민심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그런데 박근혜일당이 무릎을 꿇고 벌을 청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도리여 백서니, 《성과》니 하고 꼴사납게 놀아대고있으니 그야말로 밑다니까 노랑치마 입고 나온다는 격이다.

괴뢰보수패당이 특대형부정부패죄악으로 감옥귀신이 될 박근혜를 놓고 백서를 발간한다 어쩐다 하며 분주함을 피우는것이야말로 민의를 거역하는 후안무치한 망동으로서 삶은 소대가리도 폭소를 터칠노릇이다.

도대체 박근혜일당에게 그 무슨 《창조경제》니, 《국민행복》이니, 《평화통일》이니 하고 나발질할 체면이 있는가. 그 잘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의 간판밑에 피비린 《유신》독재를 부활시킨 박근혜역도는 근로대중의 피땀을 빨아 제배를 불리면서 온 남조선을 세상사람들이 지탄하는 《야만의 사회》로 만들었다. 괴뢰역도가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부르짖으며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압살책동에 미쳐날뛴것은 반드시 절산하여야 할 특대형범죄이다. 박근혜역도가 집권기간 해놓은 일이 있다면 그것은 위기에 처한 경제를 더욱 극랑쳐놓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으며 사대매국과 동족대결로 북남관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남조선을 미국의 현대판식민지로 더욱 전락시킨것뿐이다. 박근혜역도의 집권 4년간이야말로 민족앞에 저지른 씻을수 없는 극악한 반역죄악들로 엮어진 하나의 범죄실록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지금 남조선에서 각계층 인민들의 대중적인 초불투쟁이 계속되고있는것은 온갖 죄악의 덩어리이며 민족의 륙동제앙거리인 청와대마녀를 한시바삐 징벌하려는 민심의 강렬한 의지의 과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역도와 그 졸개들이 저들의 치적을 내세우는 백서발간놀음을 뻐젓이 벌려놓고있는것은 이자들이 얼마나 뻔뻔스럽고 철면피한 무뢰한들인가 하는것을 다시한번 폭로해주고있다. 오죽하였으면 얼마전까지 박근혜역도와 한배를 타고있던 《바른정당》패거리들까지 《홍보백서에 앞서 반성백서부터 쓰라.》고 비난했겠는가.

박근혜일당이 한사코 민심에 역행하면서 저들의 치적을 광고하는 백서발간놀음에 매달리고있는것은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반인민적악정을 비롯하여 집권기간 지지른 저들의 추악한 범죄행적을 미화하여 민심의 분노를 눅잦히고 력사의 심판에서 벗어나보려는 불순한 기도의 발로이다.

지금 박근혜역적패당은 날로 조여드는 파멸의 올가미를 어떻게 하나 벗어던지고 위기에서 헤어나기 위해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다. 특별검사의 청와대압수수색과 박근혜에 대한 대면조사요구를 거부하고 파렴치한 거짓말로 저들의 죄과를 몽땅 부인하고있으며 교묘한 수법으로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고 발광하고있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괴뢰들이 박근혜역도의 치적을 광고하는 백서발간놀음을 벌려놓은것은 징벌의 철추를 모면하고 꺼져가는 잔명을 부지해보려는 역적무리의 책동이 얼마나 극도에 달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비루한 목숨을 건지기 위해 머리은 죄악의 몸뚱아리에 분칠까지 해대면서 민심을 우롱하고 너절하게 놀아대고있는 박근혜패당의 망동은 남조선 각계의 분노와 증오를 더욱 폭발시키고있다.

인민을 통락하려드는 반역아들에게는 인민의 힘, 민심의 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꼬물만 한 인간적체면과 분별력도 없는 추물중의 추물인 박근혜역도에게 하루빨리 부자비한 철추를 내려야 할것이다.

온 정 철

《싸드》배치소동을 통해 본 친미역적들의 몰골

친미급종의식이 골수에 꽉 들어찬 괴뢰패당이 미국과 작당하여 《싸드》배치강행에 열을 올리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에 기여든 미국방장관은 《〈싸드〉배치를 드팀없이 추진》하자느니 뭐니 하면서 괴뢰들이 《싸드》배치를 계속 다그칠것을 요구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은 《싸드》의 남조선배치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싸일방위체계구축의 관건적고리로 여기고 그것을 적극 추진해왔다. 미국은 괴뢰들에게 《싸드》의 남조선배치를 조건으로 보수의 재집권을 실현시켜주겠다는것을 약속하였다.

남조선언론이 폭로한것처럼 지난해 괴뢰국회의원선거가 끝난 후 미국무성 부장관, 미국가정보국 장관 등이 서울에 날아든것은 다음기 《대통령》선거에서 보수의 재집권에 미국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다는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한것이였다. 이로 하여 박근혜패당이 《싸드》배치에 팔걷고나선것은 이미 폭로된 사실이다.

그런데 남조선에서 특대형정치추문사건이 터지고 박근혜퇴진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대중적투쟁이 계속 고조되는 속에 조선반도주변나라들이 《싸드》배치에 강한 불만을 표시해나서자 미국은 괴뢰들을 또다시 다그어대고있다. 현 괴뢰정권하에서 어떻게 하나 《싸드》배치를 마무리하려는것이 미국의 흉심이다.

문제는 《싸드》배치를 다그칠데 대한 미국상전의 요구에 괴뢰보수패당이 적극 응해나서고있는 사실이다.

괴뢰들은 내외의 한결같은 반대규탄에도 불구하고 《싸드》배치는 《〈북의 핵위협〉에 따른 최소한의 방어적조치》라느니, 《미국방장관이 나서서 다른 나라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느니 하는 망발을 줴쳐대며 《싸드》배치를 계속 다그칠 자세를 드러냈다.

한편 괴뢰들은 지난 2월 3일 미국방장관과의 회담을 앞두고 롯데측과 《싸드》배치지문제를 락착짓기 위한 공식론의를 진행하였다.

이미전부터 괴뢰들은 롯데측이 소유하고있는 성주골프장이 《싸드》배치에 가장 유리하다고 하면서 그곳을 《싸드》배치지로 정하였다. 괴뢰들은 성주골프장을 빨리 확보하면 《싸드》배치를 올해 5월중으로 끝낼수 있다고 타산하였다. 이로부터 괴뢰들은 올해 1월초에 롯데측과 부지교환방식으로 《싸드》배치지문제를 결속하려 하였다.

하지만 롯데에 대한 주변나라의 보복조치가 이어지면서 《싸드》배치지문제해결이 지체되였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방장관이 남조선에 날아들게 되자 안달이 난 괴뢰패당은 어떻게 해서라도 《싸드》배치지문제를 해결할 목적밑에 성주골프장보다 경제적리익이 보다 큰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롯데측을 유혹하고 압력까지 가하여 끝내 롯데가 《싸드》배치지를 확정하는 리사회를 열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언론들은 괴뢰당국이 미국방장관과의 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선물》을 섬겨바치기 위해 롯데측에 압력을 가했다고 평하였다.

친미사대에 환장한 나머지 남조선인민들의 운명과 겨레의 안녕은 안중에도 없이 미국의 장단에 춤을 추며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는 괴뢰역적패당의 망동은 조선반도정세를 엄중한 위기국면에로 몰아가고있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미국과 보수당국이 공모하여 벌리고있는 《싸드》배치놀음으로 하여 동북아시아지역에 신랭전구도가 형성될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사태는 심각하다. 괴뢰들이 한사코 미국에 추종하며 《싸드》를 끌어들인다면 그것은 새로운 핵전쟁의 발화점으로 될것이며 남조선은 외세의 대결장으로 확고히 전락되고 인민들은 대국들이 벌리는 각축전의 희생물이 될것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싸드〉배치는 미국의 리익을 위한것으로서 민중의 생명을 위협하고있다.》, 《참을만큼 참았다. 온 민중을 위험에 빠뜨리는것을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다.》, 《전쟁을 초래하는 〈싸드〉배치를 철회하라.》고 웨치면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괴뢰집권세력은 인민들의 피타는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만일 괴뢰패당이 미국과 야합하여 끝끝내 《싸드》를 끌어들인다면 그 용납 못할 매국반역의 대가를 비참한 멸망으로 치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장 일 향

북남협력파괴자들의 용납 못할 죄악

얼마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는 지난해에 있은 괴뢰당국의 개성공업지구폐쇄결정을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불법불의한 처사》로 락인, 규탄하면서 북남사이의 대화와 개성공업지구를 비롯한 북남협력사업들의 즉각 재개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남조선신문 《한겨레》도 보수당국의 일방적이며 전격적인 개성공업지구폐쇄결정을 문제시하면서 북남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수 있는 개성공업지구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빠른 시일안에 시작되여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실었다. 야당정치인들은 물론 현 괴뢰정권의 첫 통일부 장관이였던 류길재도 얼마전에 있은 기자회견에서 폐쇄된 개성공업지구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6.15이후 온 겨레의 관심과 기대속에서 10여년간이나 공동번영의 동음을 울려온 개성공업지구가 박근혜역도의 범죄적인 동족대결망동에 의해 전면폐쇄된지도 어느덧 1년이 넘었다.

알려진바와 같이 개성공업지구는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 협력과 교류의 상징이며 민족공동의 전위물이다. 대결광신자로 악명을 떨친 리명박역도가 북남관계를 완전히 차단하는 《5.24조치》를 마구 휘둘렀지만 개성공업지구만은 다치지 못하였다.

하지만 동족에 대한 병적인 거부감과 극도의 대결관념에 물젖어있는 박근혜역도는 집권초시기부터 그 무슨 《돈줄》이니 뭐니 하며 개성공업지구를 없애버리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괴뢰들이 개성공업지구에서 《인질억류사태》가 예상되기때문에 《인질구출》을 위해 미군특공대를 투입할수 있다는 나발을 공공연히 줴쳐대면서 개성공업지구운영에 엄중한 위기를 조성한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우리의 인내성과 아량, 무준한 노력이 없었더라면 아마 개성공업지구는 그때 벌써 사라졌을것이다.

괴뢰들은 우리와 마주앉아 개성공업지구를 《어떠한 경우에도 폐쇄하지 않겠다.》는것을 민족앞에 엄숙히 확약한 이후에도 어떻게 하나 개성공업지구를 없애버리려고 발악하였다. 역적패당은 지난해에 우리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와 정화적인 우주개발사업을 그 무슨 유엔 《결의위반》으로 악랄하게 걸고들면서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제재소동에 미쳐날뛰였다. 나중에는 그 무슨 《뼈아픈 고통》이니, 《혹독한 대가》니 하고 고아대며 6.15의 옥동자이며 북남관계의 마지막보루로 불리우던 개성공업지구를 완전히 도륙냈다.

널리 폭로된바이지만 박근혜역도의 《대북정책》은 핵문제를 구실로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모조리 차단하고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는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이런데로부터 괴뢰역도는 저들의 《대북정책》과 모순되는 개성공업지구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우리에 대한 제재, 압박의 수단으로 써먹으려고 획책해왔다. 개성공업지구의 폐쇄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한사코 반대하고 북남관계파괴와 동족압살책동에 미쳐날뛰여온 박근혜패당의 추악한 몰골을 낱낱이 폭로해주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사회 각계와 광범한 인민들은 박근혜역적패당의 개성공업지구전면폐쇄결정은 그자체가 무효이라고 하면서 개성공업지구가 즉각 재가동되여야 한다고 주장해나서고있다.

바빠맞은 괴뢰패당은 개성공업지구자금이 《북의 핵 및 미싸일개발》에 리용되였다는 억지스러운 론리를 들고나오고있다. 며칠전에도 괴뢰통일부 장관 홍용표역도는 개성공업지구의 재가동이 유엔의 《제재결의》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느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공조》니 하고 뇌까리면서 《재가동은 사실상 어렵다.》는것이 저들의 립장이라고 못박았다. 이것은 《북의 핵 및 미싸일개발》이니 뭐니 하는 터무니없는 구실을 내대며 개성공업지구를 폐쇄시킨 저들의 죄악을 어떻게 하나 합리화하고 파산에 직면한 《대북정책》을 한사코 유지하며 북남관계를 계속 파국상태에 몰아넣으려는 흉심의 발로이다.

괴뢰들은 그 어떤 궤변과 술책으로써도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가로막고 북남관계를 오늘과 같은 최악의 파국상태에 몰아넣은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남조선 각계는 개성공업지구가 폐쇄되고 북남관계가 그 어떤 대화도 협력도 없는 극단적인 상태에 처해있는것이 박근혜역적패당의 동족대결정책의 필연적결과이라는것을 너무도 잘 알고있다.

어리석은 동족대결정책으로 오히려 남조선에 심각한 경제위기와 심업사태를 불아오고 민생악화를 초래한 현 괴뢰집권세력의 망동에 대한 인민들의 분노는 계속 고조되고있다.

개성공업지구의 재가동은 물론 금강산관광재개도 악랄하게 거부하고있는 괴뢰패당의 처사로 말미암아 엄청난 피해를 입고있는 남조선의 북남협력관련기업들은 보수당국이 시대착오적인 《대북정책》을 철폐하고 북남관계정상화의 길에 나서라고 들이대고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괴뢰당국이 북남관계를 여지없이 파괴한 결과 조선반도에서 전쟁위기만 고조되고있다고 울분을 터뜨리면서 북남관계개선만이 민족의 살길이라고 한목소리로 웨치고있다.

개성공업지구사업을 완전히 말아먹고 북남관계를 풍지박산낸 박근혜패당은 그 죄악만으로도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마땅하다.

극악무도한 반통일역적무리는 천추에 용납 못할 죄악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심 철 영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미국의 무력증강책동

그 누구의 《도발》을 구실로 미국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대대적으로 무력을 증강하고있다.

남조선에 《싸드》를 배치하려고 발악하고있는것도 그 누구의 《도발》에 대처한다는 미명하에 감행되는 무력증강책동이다.

미국은 3월 남조선에서 벌리게 될 합동군사연습에 핵항공모함전단 《칼빈손》호를 들이밀려 하고있다.

괌도와 미국본토의 핵전략폭격기편대들, 일본본토와 오끼나와에 전개해놓은 스텔스전투기들도 남조선으로 출격할 준비를 갖추고있다.

무분별한 미국의 무력증강책동으로 조선반도정세는 예측할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있다.

미국은 랭전시대의 대결관념을 가지고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망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탄핵심판이 더는 지연되여서는 안된다, 꼭두각시 《대통령》은 즉시 퇴진하라

남조선 100여곳에서 16차 초불투쟁 전개, 84만 4 000여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

남조선언론들에 의하면 18일 남조선 각지에서 박근혜역도년의 퇴진을 위한 16차 범국민행동이 전개되였다.

박근혜 《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의 주최로 진행된 이날의 투쟁에 각계층 단체성원들과 주민들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들, 야당의원들, 나어린 초등학교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남녀로소 84만 4 000여명이 초불을 들고 참가하였다.

서울에서는 각계층 군중의 참가하에 《탄핵지연 어림없다! 박근혜, 황교안 즉각 퇴진! 특검연장! 공범자구속을 위한 16차 범국민행동의 날》투쟁이 전개되였다.

집회를 앞두고 장충체육관에서 수천명의 시민들이 초불권리선언을 위한 토론회를 가지였다.

토론자들은 오늘의 초불이 박근혜탄핵만이 아닌 사회의 대개혁을 요구하고있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온통 《대통령》선거에만 가있을뿐 개혁립법에 여전히 미온적이라고 비난하였다.

초불열망이 박근혜퇴진을 넘어 보다 근본적이며 종합적인 변화를 갈망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초불권리선언을 만들어 권력람용이 발붙일수 없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남조선사회가 어데로 가야 하는가는 민중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국민의 열망을 보다 구체적으로 토론하고 그 결과를 초불권리선언에 담아 근본적인 변혁을 요구할것이라고 그들은 언명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재벌체제와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정책, 교육불평등, 공안통치기구, 선거 및 정치제도의 개혁, 위험사회청산, 사회복지와 공공성, 생존권의 보장 등의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론의되였다.

시내 각곳에서 수십만명의 군중이 광화문광장에 집결한 속에 초불집회가 시작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삼성전자 부회장 리재용이 구속됨으로써 박근혜가 뇌물을 받아먹은 장본인이라는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들은 박근혜를 《이전 꼭두각시대통령》으로 조소하면서 오늘의 시국이 몇개월째인데 아직도 탄핵리유를 모르는가고 규탄하였다.

《대통령》이 꼭두각시로 된 그자체가 바로 탄핵리유라고 하면서 그들은 지난 4년간 가짜 《대통령》에게 속았다고 개탄하였다.

그들은 박근혜가 꼭두각시처럼 남이 시키는대로만 행동하며 민중이 피눈물 흘리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것을 보는것이 더 좋았는가고 질규하였다.

리재용이 구속되였지만 《국정》롱락을 비호하는 세력은 여전히 존재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탄핵심판이 더는 지연되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시민들이 바라는것은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이며 이를 실현하자면 초불시민들이 더 뭉쳐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집회에서는 결의문이 랑독되였다.

결의문은 이미 구속된 김기춘, 조윤선, 리재용의 오늘이 박근혜와 공범자들의 래일이 될수 있도록 초불을 내려놓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퇴진을 위해 25일 광화문에 다시 모이며 3월 1일에도 초불을 들고 힘을 합치자고 결의문은 호소하였다.

이어 집회참가자들은 1만 5 200여명의 파쑈경찰이 폭압태세를 갖추고있는 거리에 나서서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대기업체건물들을 향해 시위행진을 하였다.

수많은 시민들이 시위대렬에 계속 합세하여 참가자가 80만명으로 늘어나 박근혜퇴진의 함성이 더욱 높아갔다.

청와대가까이에 이르러 주변을 에워싼 시위자들은 반박근혜구호를 웨치고 나팔을 불면서 괴뢰역적패당에게 공포를 안겨주었다.

한편 《헌법재판소》앞에 도착한 시위군중도 탄핵결정을 서두를것을 요구하며 기세를 올렸다.

이날 박근혜의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는 함성은 다른 지역들에서도 일제히 울려나왔다.

부산에서는 2만 3 000여명의 시민들이 초불을 들고 《2월 즉각 탄핵》을 웨치며 집회장에 모여들었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 정경유착을 끊어버리는 계기가 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제는 박근혜탄핵안결정과 구속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놓여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정치권과 《헌법재판소》가 특검연장, 2월탄핵 목소리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였다.

그들은 박근혜정책폐기와 악폐청산, 사회개혁실현을 위해 광장에서 끝까지 초불을 들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국민의 명령이다. 2월에 탄핵하라.》, 《모이자 광장으로》, 《수사방해 박근혜를 즉각 탄핵하라.》, 《특검 연장하라.》 등 분노에 찬 웨침이 울려나왔다.

집회를 보며 시민들은 《국정》롱락시대에 대해 부끄러워할줄 모르고 《대통령》과 여당, 친박단체들이 어떻게 하나 시간을 끌려고 하고있다,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국민의 탄핵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친박세력의 지연전술이 계속될수록 초불은 늘어날것이다고 말하였다.

참가자들은 시위행진에 이어 다시 집회를 열고 이제는 박근혜가 탄핵, 구속되여야 할 때라고 질규하였다.

대전에서는 1 000여명의 시민들이 《박근혜 즉각 퇴진》, 《박근혜 구속수사》 등의 구호판을 들고 시국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박근혜집권 4년간은 국민에게 있어서 생지옥에서의 나날이였다고 하면서 이번 기회에 70여년동안 쌓여온 폐단을 청산하고 리명박근혜표 정책들을 모두 폐기하자고 주장하였다.

특검의 청와대수색과 수사기간연장은 반드시 실현되여야 하며 박근혜탄핵과 동시에 최대의 부역자이며 공범자인 황교안도 같이 구속되여야 한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국민의 의견을 《헌법재판소》가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자체가 민주주의의 포기라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집회를 마친 군중은 《뇌물수수 박근혜를 구속하라.》, 《특검을 연장하고 박근혜를 구속하라.》, 《박근혜를 즉각 탄핵하라.》고 웨치며 시위행진을 하였다.

또한 광주에서 박근혜퇴진을 요구하는 1만명 시민들의 함성이 울려나왔으며 대구에서는 수많은 청소년들도 집회에 참가하여 시국선언을 하였다.

울산에서 박근혜와 황교안의 즉시퇴진, 특검연장, 공범자구속을 위한 시민집회가 진행될때 제주도에서는 사회계관계자들, 주민, 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층 군중이 《박근혜정권 즉각 퇴진》, 《특검수사 연장하라.》 등의 함성을 터쳤다.

이날 수문사건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며 권력연장음모를 꾸미고있는 괴뢰역적패당의 조속한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남조선의 100여곳에서 울려나왔다.

16차 초불투쟁에 대해 언론들은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행위 등으로 구속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최종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초불집회의 열기도 한층 달아오르고있다.》, 《초불이 토요일밤의 거리를 꽉 채웠다.》,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과 특검수사기간연장을 요구하는 웨침이 추위속에도 광장을 채웠다.》고 하면서 거리를 가득 메운 초불이 다음주에 더 커질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우리의 승리적전진을 가로막을자 이 세상에 없다

세계의 언론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련일 대서특필하고있다. 이런 속에서 인터네트웨브싸이트 《구글뉴스》, NBC방송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언론들이 트럼프행정부가 제재와 군사적방법으로는 조선의 핵포기를 실현시키지 못할것이라고 평가하고있어 세상사람들의 주목을 끌고있다.

우선 제재가 조선에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것이다.

언론들은 마감단계에 이른 우리의 려명거리건설에서 그 근거를 찾고있다.

얼마전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려명거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태양절전으로 려명거리건설을 기어이 뚫음으로써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국력을 남김없이 시위할것을 건설에 동원된 전체 군인들과 건설자들에게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려명거리건설장의 전경을 만족하게 바라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한사코 가로막아보려는 적들의 발악적인 군사적압살책동과 경제제재속에서 진행하는 려명거리건설은 단순히 거리형성이 아니라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와의 대결전이며 사회주의수호전이라고 하시면서 려명거리건설을 통하여 그 어떤 제재와 압력도 자기가 정한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승리적전진을 절대로 막지 못한다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미국언론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확신에 찬 이 말씀에 초점을 돌리고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와 함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서 시대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도록 해주신 강원도정신이 있어 미국의 가중되는 제재와 압박이 통하지 않는다는데 대해 주장하였다. 언론들은 강원도정신은 국제적인 제재로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되여도 굴복하지 않고 핵무기와 미싸일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영한것이라고 평하였다.

다음으로는 군사적방법으로도 조선의 핵포기를 실현할수 없다는것이다.

언론들은 트럼프행정부가 조선의 핵 및 미싸일개발에 강경하게 대응할것이라고 신호를 보내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조선은 그에 맞서나갈 의지를 공식표명하고있다고 전하였다.

새로 발족된 미행정부는 제재도 군사적위협공갈도 조선에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언론들의 주장을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２０１３년에 우리 당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을 내놓았을 때 미국은 그것이 실현될수 없을것이라는 입빠른 소리를 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핵무력건설과 경제강국건설을 동시에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우리의 핵무력은 세계가 상상도 할수 없는 빠른 속도로 질량적으로 발전하였다. 우리는 이미 대륙간탄도로케트에서 관건적요소라고 할수 있는 핵탄두의 소형화를 실현하였다. 대기권재돌입시험에서 성공하였다. 미본토를 핵선제타격으로 초토화할수 있다고 한 선언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것을 미침략세력이 몸서리를 칠 정도로 보여주었다. 우리의 위력한 핵공격기술들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잔인한 제재와 혹독한 핵위협공갈속에서 마련한 빛나는 성과들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을 내세워 대조선《제재결의》를 조작하고 비렬한 책동에 매달리고있는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적들이 바라는것처럼 침체되고 질식된것이 아니라 눈부시게 비약하고있다. 우리는 온 나라에 전민학습열풍을 일으키면서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척척 해결해나가고있다. 거의 모든것을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에 의거하여 만들어내고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꾸려놓은 우리에게 있어서 경제강국은 지척에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례없는 핵공갈과 국제적제재에 매달리는것은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손쉽게 먹어보자는데 흉악한 목적이 있다. 최근년간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든기에도 억스러운 그 무슨 《참수작전》따위를 줴쳐대면서 해전쟁연습을 벌리는것도, 국제적제재소동을 어지럽게 일으키고있는것도 결국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우리를 압살해보자는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것이다.

핵에는 핵으로 대탄하는것이 우리의 기질이다. 미국의 핵위협공갈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우리가 그를 종식시키기 위한 핵무기를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는것은 시비거리로 될수 없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이 수소탄보유국이 된 오늘날에 와서까지 비핵화를 떠드는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전 미국무성 관리로서 6자회담에도 참가하였던 데이비드 스트라우브는 인터네트홈페지에 실은 기사에서 전 미국가정보국 장관 클래퍼는 비핵화는 실패한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미국이 조선에 비핵화를 요구한다고 하여 조선이 핵을 버리지 않을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무성이 즉시 반박을 하였지만 비핵화의 불가능성을 믿고있는 사람들은 클래퍼만이 아니다. 학자들, 두뇌진들, 이전 관리들도 다 그렇게 믿고있다. 조선에 대한 미국의 선제타격은 상상할수 없는 보복타격으로 이어지게 될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만이 아니다. 조선문제전문가인 안드레이 란꼬브도 우리가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 성공하였으며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에서 성공하는것은 시간문제라는데 대해 언급하고 이것은 조선이 미국의 시카고나 로스안젤스를 전멸시킬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라는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완전하고 되돌릴수 없는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유일한 조건으로 계속 고집한다면 반드시 실패하게 될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조선은 자기의 안전과 생존에 대한 유일한 담보로 간주하는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비국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이 차지한 전략적지위를 한사코 부정하면서 핵공갈과 제재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는것이다.

지금 미국은 오는 3월에 강행할 《키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앞두고 미전략자산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전개시킨다, 전략자산들의 재원을 공개한다 어쩐다 하며 허세를 부리고있다. 미군부우두머리들은 앞으로 장거리전략폭격기 《B－５２》, 초음속전략폭격기 《B－１B》, 스텔스폭격기 《B－２스피리트》 등 저들의 전략자산들이 련속 조선반도에 파견될것이라고 떠들고있다.

우리를 놀래워보려는 어리석은 망동이다. 선군조선은 적들의 허장성세에 끄떡하지 않는다.

미국의 핵만능론은 거덜이 난지 오래다. 우리 공화국은 세계가 《절대병기》라고 일컫는 수소탄까지 보유하고있는 핵강국이다. 미국이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가중시키면 시킬수록 미본토의 안전은 시시각각 위협을 당해 되여있다.

트럼프행정부는 자기 집권기간에 우리의 《변화》와 《붕괴》를 실현해보겠다는 개꿈만 꾸다가 패배자로 락인되여 세상사람들의 비난과 조소만을 받은 오바마당의 전철을 그대로 밟다가는 미국을 종국적멸망에로 몰아가게 된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초강도핵위협공갈도 초강도경제제재도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미국은 대세를 바로 보고 헛된 망상에서 깨여나야 한다. 우리 공화국을 파녁으로 삼고 집요하게 벌린 불법무법의 초강도제재소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을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용감하게 뚫고나가는 불사신으로 성장케 하였고 전대미문의 군사적압살공세는 전만군민으로 하여금 선군을 원쑤격멸의 만능보검으로 더욱 억세게 틀어쥐게 하고있다.

현 미행정부는 총파산된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답습하려 할것이 아니라 정책전환이라는 대용단을 내려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천만군민의 승리적전진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리 현 도

절세위인에 대한 열화같은 칭송의 목소리

여러 나라 인사들 열렬히 칭송

한평생을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으로 수놓아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열화같은 칭송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가고있다.

불세출의 전설적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은 뜻깊은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인사들이 보내여온 축전과 축하편지들에 그대로 어려있다.

파키스탄자력갱생연구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혁명직가정에서 탄생하시여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온 세계는 광명성절을 뜻깊게 경축하고있으며 그이께서 이룩하신 거대한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기네무지개인민련합 총비서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로숙하고 세련된 정치적참모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정일동지는 정력적인 령도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전렬에 올려세우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 시대를 열어놓으신 절세의 위인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위업수행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영원히 빛날것이라고 하면서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자위의 총대, 무적의 군력만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수 있다는 철리를 천명하시고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신 그이이시야말로 위대한 선군령장이시라고 격찬하였다.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중앙지도위사회 총위원장과 총서기는 이렇게 피력하였다.

김정일동지는 조선을 그 어떤 원쑤도 감히 범접 못하는 강력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신 희세의 정치가이시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자신의 모든것을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다 바치신 조선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부강번영과 조선인민의 행복 그리고 세계의 자주화위업실현에 쌓아올리신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길이 남아있을것이다.

먄마인사들 담화 발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5돐을 맞으며 먄마인사들이 2일과 3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먄마련맹련대성발전당 양곤지역위원회 비서 타윈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는 세계정치정세의 흐름과 반제자주시대의 요구에 맞게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시고 조선로동당이 선군의 위력으로 강성번영의 길을 열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그이의 령도가 있었기에 조선로동당은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권위있고 강위력한 당으로 존엄떨치였으며 혁명적당건설의 귀감으로 되였다.

조선로동당이 항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할수 있은것은 김정일각하의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김정일각하의 존함은 승리만을 떨쳐온 조선로동당의 력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먄마준비위원회 위원장인 만마통종의학과학연구소 소장 민 툰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인류자주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정일각하께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여 자주성을 위해 투쟁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안겨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선군의 보검으로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시였다.

조선인민은 김정은각하를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승리의 신심에 넘쳐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각하께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조선인민이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각하의 탁월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강국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통일위업수행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고 확신한다.

조선은 하나다

영국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영국조선친선협회,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영국준비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련합회의 호소문을 지지하여 1월 2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조선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평화하고도 현실적인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여기에는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그이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높은 뜻이 깃들어있다.

올해는 력사적인 7.4공동성명발표 마흔다섯돐과 10.4선언발표 열돐이 되는 해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련합회의에서는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였다.

우리는 이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한다.

또한 조선통일의 길을 가로막고있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을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반공화국전쟁연습소동을 걷어치워야 한다.

호소문의 리행은 조선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돌파구로 될것이며 세계평화에도 적극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조선은 하나다!

미국은 조선에서 물러가라!

미국의 이주민정책을 반대하여 시위

메히꼬의 메히꼬시에서 12일 미국의 그릇된 이주민정책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미행정부가 이주민들의 출입을 막는다는 미명하에 메히꼬와의 국경지역에 장벽건설을 결정한데 대해 항의하여 일어난 시위에는 약 1만 7 000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자들은 거리들을 따라 행진하면서 《장벽건설을 반대한다》라는 구호들을 웨치며 미행정부의 이주민정책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들은 미국과 메히꼬사이의 국경지역에 장벽을 건설하고 이슬람교도들의 미국입국을 금지하는것과 같은 정책은 인권침해행위라고 단죄하면서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지킬것을 미국에 요구하였다.

쁠럭불가담운동성원국들의 협조를 호소

이란대통령 하싼 루하니가 최근 한 외교석상에서 쁠럭불가담운동성원국들이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호상 협력하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놀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자주적인 국가들 특히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자기 인민에게 의거하고 일방주의와 극단주의, 록력행위를 반대하여 단합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란정부는 정치, 경제 등 분야에서 라틴아메리카나라들과의 관계를 심화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프랑크-왈터 슈타인마이어 도이췰란드대통령으로 당선

도이췰란드에서 프랑크-왈터 슈타인마이어가 새 대통령으로 당선되였다.

그는 최근 련방의회에서 진행된 대통령선거에서 과반수의 지지표를 받았다 한다.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함메도브 뚜르크메니스딴대통령으로 재선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함메도브가 뚜르크메니스딴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되였다.

그는 최근에 진행된 대통령선거에서 압도적다수의 지지표를 받았다 한다.

이 나라 중앙선거위원회가 이에 대해 밝혔다.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전기화 추진

라오스정부가 2020년에 가서 약 95%의 주민세대가 전기의 력을 볼수 있도록 할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전국각지에 더 많은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있다.

관광업발전노력

라이에서 관광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12일 정부의 조치에 따라 만에 위치하고있는 빠따야와 후아힌을 오가는 배봉사가 정식 시작되였다.

이것은 만을 사이에 둔 두 관광지사이의 려행시간을 줄이고 관광객수를 늘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발전소 조업

스리랑카의 자프나에서 새 발전소가 건설되여 10일 조업하였다. 풍력과 태양열 등을 리용하는 발전소의 발전능력은 6만kW에 달한다.

산림복구노력

케냐이에서 산림복구에 힘을 넣고있다. 10일 이 나라 정부는 황폐화된 510만ha의 산림을 복구할것을 계획하고 나무심기를 짜고들고있다고 밝혔다.

나라에서는 2030년까지 산림덮임률을 10%에 이르게 할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협조

수단과 잠비아가 11일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상급위원회를 내올데 관한 협정에 조인하였다.

같은 날 베네수엘라와 알제리는 원유가격을 재평가하는데서 호상 협력하기로 하였다.

최근 케니아와 탄자니아는 야생동물보호사업에서 쌍무협조를 계속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미국 로므니아에 무력 전개

미국이 최근 제8보병련대 1대대 500명의 미군병력과 땅크를 비롯한 무장장비들을 로므니아의 한 항구에 끌어다놓았다. 무력은 곧 이 나라의 동부에 있는 공군기지에 전개된다고 한다.

14일 로므니아주재 미국대사는 이러한 무력전개가 유럽의 동남부와 흑해연안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데 있다고 떠벌였다.

동유럽에로의 미국의 무력증강책동은 로씨야의 경계심을 자아내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제재에 강경대응하는 이란

오늘의 세계

미국과 이란사이의 대립과 마찰이 격화되고있다.

얼마전 이란이 중거리탄도미싸일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 그 다음날 미국회 상원외교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 국회의원들과 협력하여 대해란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울것이라고 을러댔다.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란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에 따라 탄도미싸일시험을 할수 없게 되여있다고 하면서 미행정부는 사태를 관망하지 않을것이라고 떠벌였다.

미국가안보보좌관이였던 마이클 플린은 이란의 탄도미싸일발사가 중동지역의 안정을 파괴하고 미국의 동맹국들에 위협을 준다는 당치않은 궤변을 늘어놓았다.

미제무성은 이란의 탄도미싸일발사를 탸대고 또다시 새로운 대이란제재를 발표하였다. 제재명단에 오른 대상들은 이란에 탄도미싸일기술을 이전하는데 관여하였다고 하는 １３명의 인물들과 １２개 기업과 단체들이다.

미국의 무당한 제재책동에 이란이 강하게 대응해나서고있다.

이란은 미국의 새로운 제재책동에 대한 보복조치로 극단주의적인 테로단체들을 규합하고 지원을 주고있는 미국인들과 회사에 법적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란의 한 고위인물은 테헤란종합대학에서 진행된 대규모집회에서 연설하면서 오만한 미행정부와 같은 승냥이들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살고있는것만큼 나라를 보위하기 위한 미싸일 및 방위계획을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나라 외무성은 미국의 비난을 무근거한 도발행위로 락인하면서 미국의 대이란제재는 이란핵합의정신을 위반하였을뿐아니라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한 공약을 어긴것으로 된다, 우리의 미싸일연구개발은 국가방위를 위한것으로서 이란핵합의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 우리는 그 어떤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앞으로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미싸일연구개발을 비롯한 국방력강화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것이다라고 천명하였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새로운 대이란제재가 미국과 이란사이의 보다 치렬한 대결의 서막을 열어놓을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이 불피코 이란핵합의리행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평하고있다.

이란핵합의가 이룩된지도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다. 이란은 그동안 핵합의를 리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미국은 요술을 부리면서 핵합의리행을 회피해왔다.

미국은 이란의 원유를 실어나르는 유조선들에 대한 제재만을 부분적으로 해제하였을뿐 이란과 다른 나라들사이의 은행거래금지조치를 비롯한 기타 제재들을 해제하지 않고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이란의 자위적국방력강화를 위한 미싸일시험발사들이 핵합의리행에 저촉된다고 걸고들면서 새로운 제재조치들을 계속 취하고있다.

대표적인 실례로 미국은 2015년 10월과 11월에 이란이 자체로 개발한 탄도미싸일들을 시험발사하자 그것을 핵무기제조를 위한것이라고 몰아붙이면서 그 다음해 1월에 이란의 개별적인물들과 １１개의 기업체들 대상으로 제재를 가하였다.

이란과 이미 심시했던 경제제재들을 해제하기로 약속하고는 리행하지 않고있을뿐아니라 또 다른 제재를 가하고있는 미국의 흉심은 다른데 있지 않다. 이란의 국력을 약화시켜 저들에게 순종하는 나라로 만들자는것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이번에 가한 제재는 결코 새로운것이 아니며 미국이 늘 써먹던 상투적수법에 불과하다.

미국의 위선적인 처사로 하여 이란과 미국사이의 모순과 대립은 극도에 달하고있으며 핵합의리행전망은 점점 암담해지고있다. 미국이 앞으로 자기의 목적과 배치된다고 생각될 때 어느때든지 서슴없이 핵합의를 번경, 파기시킬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기때문이다. 이로부터 이란은 오직 강력한 군사력을 가져야만 미국과의 대결에서 주도권을 쥐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지켜낼수 있다는것을 깨닫고 국방력강화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최근 이란은 미국과의 대결기운이 고조되고있는 속에 미싸일훈련을 포함한 대규모군사훈련을 개시하였다.

이란이슬람교혁명근위대 총사령관은 미국이 이란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그마한 실책이라도 범한다면 분노한 이란의 미싸일들이 그들의 머리우에 떨어질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정세분석가들은 미국이 이란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들을 걸고들면서 대이란제재소동에 계속 매여달리는 한 이란과 미국사이의 적대관계는 절대로 해소되지 않을것이며 앞으로 보다 첨예해질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김 수 진

날로 첨예해지는 중미마찰

얼마전 중국이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에 성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중국국방부는 이 시험발사가 특정국가나 목표를 겨냥한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적지 않은 외신들과 전문가들은 중국의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가 새 미행정부의 대중국강경조치에 대항한 무력시위라고 평하고있다.

미국과 프랑스 등 서방언론들과 미국제평가센탁쎈터의 한 전문가는 이번의 시험발사가 중국의 새로운 핵공갈연습으로서 미국을 겨냥한것이 틀림없다고 확언하였다.

중국과 미국사이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첨예해지고있다.

중미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들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우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싸드》배비문제이다.

최근에도 중국은 《싸드》배비가 중국을 포함한 지역국가들의 안전과 리익을 해치고 지역의 전략적균형을 파괴할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강력히 반대해나섰다.

미국이 조선을 제외한 다른 나라를 목표로 하지 않으니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듣기 좋게 얼려대고있지만 중국은 《싸드》배비가 자국의 전략무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데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싸드》의 작전반경은 수천km에 달하기때문에 《싸드》를 남조선에 배비하면 미국은 중국의 전략무력들이 전개된 지역들을 손금보듯 할수 있다. 중국이 심각한 우려와 강한 반대의 뜻을 표시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것을 계속 강행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중미관계에서는 심한 마찰이 일어나고있다.

다음으로 영토문제이다.

지난해 미국은 중미가 중국남해에서 반드시 싸움을 벌리게 될것이라고 밝히고 그 수역에서 위력시위를 강화하여왔다.

핵추진항공모함 《칼빈손》호를 시태평양수역으로 기동시킴으로써 중국남해에서의 해군 및 공군력을 더욱 높이였다. 또한 군용기들과 군함들로 순찰활동을 벌리면서 정세를 계속 악화시키고있다.

이러한 속에서 지난 1월말 미국은 중국이 중국남해의 국제수역에 있는 뱅토를 차지하지 못하게 할것을 다짐하였다. 올해에 들어와 이것은 미국의 두번째로 되는 결심표명이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들은 중국남해를 저들의 전초기지로 만듦으로써 중국을 항시적으로 위협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세계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재균형전략을 기어이 실행하자는데 목적을 두고있는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남해를 군사화하려고 책동하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제국주의와 지배주의라는 미국의 심리에 근원을 두고있다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이 중국을 대하는것만큼 상대방을 대해줄것이며 싸움준비를 착실히 해나갈 결심을 밝혔다.

미국은 또한 미일안보조약이 조어도에 적용될것이라고 재천명하였다. 이 섬을 일본의것으로 인정해주어 중일관계를 대결에로 몰아가자는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행동이 해당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지역정세에 불안정을 조성하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이 자국으로 하여금 해상무력과 미싸일 등 각종 타격수단들을 보충하는데 박차를 가하게 하고있다고 밝혔다.

올해에 들어와 미국이 중국의 내부문제에 또다시 개입함으로써 두 나라사이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있다.

이미 ２００８년에 미국은 《대만의 민주주의적선거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중국의 반발과 항의를 불러일으킨적이 있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원칙을 재검토할 의향을 표시함으로써 중국의 심기를 심히 불편하게 만들어놓았었다. 중국은 미국에 강한 불만을 쏟아놓는 한편 중국남해에 항공모함편대를 파견하는 등 강력한 군사적조치들을 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전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오끼나와주둔 미군의 일부를 대만으로 이전시켜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대만과의 군사적협력을 심화시킬것을 제기한 사실까지 전해져 중미관계는 그야말로 파국상태에로 치닫고있다. 그러자 미행정부는 태도를 바꾸어 《하나의 중국》정책을 존중하는데 동의한다는 말로 사태를 완화해보려 하고있다.

이밖에도 미국이 중국을 환률조작국으로 지정할것이라고 위협하고 중국이 자국내의 미국기업들을 압박하는 등 무역갈등이 심화되고있다.

중국과 미국사이의 군비경쟁도 치렬해지고있다.

앞에서 언급된바와 같이 중국은 다탄두탑재가 가능한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를 진행하였고 미싸일조기경보체계와 요격체계를 자국실정에 맞게 구축하고있다.

미국도 군비확장에 계속 열을 올리고있다.

지난해 세계의 언론들은 미국과 중국사이의 군사적움직임에 대하여 전하면서 중미가 합선과 전투기들을 파견하여 서로 견제하던 단계를 벗어나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군사연습을 벌리는데까지 이르렀다. 새로운 랭전구도가 형성되고있다, 불피코 물리적충돌에로 이어질것이다라고 평한바 있다.

앞으로 중미관계가 어떻게 변지졌는지는 두고보아야 할 일이지만 중국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국의 지배주의전략이 달라지지 않는 한 중미사이의 대립과 마찰이 더욱 격화될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본사기자 손 소 연

２１세기 혼합전쟁

수많은 국제문제 및 군사전문가들은 물론 정치가들이 혼합전쟁이란 말을 많이 하고있다.

그렇다면 혼합전쟁이란 어떤것인가. 그것은 군사적수단뿐아니라 각종 선전도구들, 경제제재, 싸이버능력 등을 모두 발동하여 상대측과 벌리는 대결전을 말한다.

21세기에 들어와 전쟁의 양상은 많이 달라지고있다. 과거에는 무장장비와 인원을 주되는 수단으로 하여 전쟁을 벌렸다면 오늘에 와서는 무력전만이 아니라 심리모략전, 경제전, 싸이버전 등을 동시에 벌리는 전쟁으로 되고있다. 다시말하여 지금은 전쟁이 지상, 해상, 공중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심리와 경제생활 그리고 싸이버공간 등 여러 령역들에서도 맹렬히 벌어지고있다. 이러한 다령역적인 전쟁을 혼합전쟁이라고 평할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은 혼합전쟁의 대표적인것으로 우크라이나사태를 꼽고있다. 그들은 로씨야가 미지의 병력과 선전깜빠니아, 경제적압력을 다 동원하여 우크라이나를 반대하는 혼합전쟁을 일으켰다고 떠들어대면서 이 나라에 대한 위협설을 계속 퍼뜨리고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은 혼합전쟁이 어떤것인가를 21세기초에 벌써 이라크에서 보여주었다. 이라크전쟁은 미국 등 서방나라들이 군사력과 함께 각종 심리수단들과 경제적잠재력 등을 다 동원하여 일으킨것이였다.

오늘도 미국이 벌리고있는 혼합전쟁에 의해 중동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죽대밭으로 되고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피난민들이 발생하고있다.

특히 미국은 저들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군사적압박과 함께 경제제재를 가하면서 그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말살하기 위해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 각종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전을 벌려 그 나라 인민들자신이 자기 나라의 정부에 불만을 가지게 하고 미지의 병력이라고 할수 있는 군사성원들과 무장장비들을 들이밀면서 내부혼란과 충돌을 조장시킨 다음 친미정권이 조작되게 하고있다. 그것이 바로 《색갈혁명》의 형태로 나타나고있다.

미국은 오늘 사회주의길로 승승장구해나가는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해 갖은 군사적방법과 함께 강도높은 경제제재를 실시하고있다. 오늘에 와서 군사적으로나 경제제재로 더는 어쩔수 없게 되자 각종 심리모략수단과 어용나팔수들까지 총동원하여 반공화국모략책동에 광분하고있다.

력사적경험은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 언제나 각성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라 명 성

ㄱ-710283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